

2021학년도 2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 [CONTENTS]

## 시상자

### 대상

[정책학세미나]	대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다	소재욱	5
----------	-----------------	-----	---

### 최우수상

[선과 다도]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 선과 다도	강동채	13
[불교윤리학]	금강(金剛),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윤리의식을 위하여	이수복	21

### 우수상

[중국어 회의통역 세미나]	튜터링을 버무린 중국어 동시통역 도전기	김동원	29
[정책학세미나]	토론과 발표를 통한 개인역량 강화	오현세	37
[선과 다도]	중도(中道)로 가는 길	정지윤	45

### 장려상

[국제운송론]	#살아있다	김동헌	55
[공직자실무영어II]	세계를 향한 창문이 되어준, 공직자실무영어	김수림	63
[창의적 사고와 표현]	반복 없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김운선	71
[경제영어에세이읽기]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중요성	장한결	77
[관리정보체계론]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형준	85
[독서와 토론]	나는 이제 읽고 말할 수 있다	하희철	91

# 2021학년도 1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좋은 수업을 배우고 때때로 익혀  
학우들과 공유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참가상

### 참가상

[교양 경제학]	심화 경제학으로 가는 보조무기	구동언	99
[영한번역연습]	번역의 세계로	김지민	105
[일본 사회와 문화]	마츠하시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일본 문화 여행	김찬겸	111
[중국인과 중국문화]	금강대에서 떠나는 중국 여행	육동인	117
[교양 경제학]	너는 경제를 알고 있니?	이주훈	123
[공기업 특강]	꿈을 위해 한발짝	이채은	131
[재무관리와 예산론]	예산, 정부의 살림살이	임진아	137
[국제물류론]	세상의 해상도	정선우	143
[사회복지현장실습]	그럼에도 나는, 사회복지를.	최주영	151
[교양 경제학]	경제학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하아람	159





[ 대상 ]

## 대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다

소재욱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찬우 교수
교과목	정책학세미나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질문과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의 수업은 현재 이곳이 취업만을 위한 취직학원이 아닌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교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 대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다



대학교란 취업학원인가?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인들의 소통의 장인가? 본래의 의미의 대학교는 후자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는 전자인 취업학원에 가깝다. 금강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잘해서 대학교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학교를 평가할 때 취업률을 하나의 큰 기준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학교는 취업을 하기 위한 혹은 취업을 하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마당이다.

나는 금강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공무원합격을 목표로 두었다. 기왕이면 9급 공무원보다 7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보다는 5급 공무원이 되어서 멋진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 또한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취업을 잘하는 것만을 학교 생활의 목표로 생각했던 것 같다. 멋진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치고, 나는 학교 전공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다. 고등학교와 다른없는 주입식 교육 방식의 학교 수업에는 그렇게 흥미를 가지진 못했고,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흥미를 가졌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 취업이라는 현실에 떠밀려 잠깐 휴학기를 가지고 공무원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다. 결과는 목표하지 않았지만 만족할만한 직렬에 운 좋게 합격하여 유예를 하고, 더 높은 직위를 목표로 더 공부하기 위해 학기를 등록했고, 2021년 9월 나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 학생이 되었다.

1년간 행정법과 행정학, 경제학, 헌법 등 전공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왔던 나는 다른 후배들보다 여유롭게 수업을 들을 것을 기대했다. 솔직히 수업을 듣지 않고 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어떤 수업을 들을지 선택하던 와중에 보였던 것은 김찬우 교수님의 정책학 세미나였다. 수강신청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수업은 기존 수업과는 달리 주입식 일방적 강의가 아닌 토론식 수업이며, 학생들이 귀찮아 할 만한 수업이라고 하셨다. 그런 귀찮고 어려운 것이 싫다면 다른 수업을 듣기를 권했다. 이 수업은 피상적인 지식을 얻는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질문과 답의 연속을 통해 근본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하셨다.

김찬우 교수님이 처음 나에게 하였던 질문은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각자만의 답이 있다. 누구는 단순히 이름, 누구의 부모의 아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 등으로 답한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탐구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이란 그림을 그리게 될지,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나는 4학년 마지막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직위를 위해 수험에 전념해야 하는 이번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강의이름은 정책학 세미나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이슈들, 예컨대 LH통합, 김영란법, 철도민영화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방면에서 분석한다. (이미 분석해 놓은 책과 강의자료가 있다,) 조사된 여러 통계들을 이용하여, 정책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등을 토론하는 수업이다.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단순히 ‘그런 정책이 있었지’라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결정자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했는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효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집행되었던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인 발표를 권장하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으로 알고 기계적인 삶을 살았다. 사람은 그런 기계적인 삶을 잘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일을 한다. 그것이 보고서로써든 단순히 구두로써든 의미와 가치를 주고받는 소통을 죽기전까지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TV에서 방영되는 뉴스에서 들리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말들은 계속 들으며 익숙해졌지만, 막상 내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김찬우 교수님의 수업은 이러한 말하는 연습을 시킨다. 매 수업시간 마다 4명 정도씩조를 만들어 진도에 해당하는 정책을 분석하고 논점을 부각시켜, 의미 있는 결론을 내, 마치 내가 공무원이 되어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브리핑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 토론을 해야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지 어려웠다. 4학년 선배로서 뭔가 후배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멋진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각자 몇 번의 멋진지 않은 발표를 했을 때, 모두가 멋진지 않은 발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수업을 끝낼 때마다 내가 했던 발표가 멋진 발표가 아니었더라도 교수님의 피드백과 그 발표에 대한 계속 된 질문으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가 조금씩 느껴지게 되었다. 다른 수업이었으면 수업이 끝나면 '방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수업에서는 발표가 항상 조금씩 아쉬웠던 감정이 들었다. 김찬우 교수님의 정책학 세미나는 그런 발전이 있었던 수업이었다. 무엇인가 어떤 아쉬운 감정을 느껴 더 잘하고 싶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이 감정이 가장 강하게 든 때는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 어느 날의 수업이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했던 정책을 다루던 주였다. 나도 수험생활을 하며 배웠다. 어떤 사업을 민영화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기본적인 것. 그러나 단지 그런 두루뭉술한 지식만을 갖고, 토론에 참여했을 때 그다지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토론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발표 또한 그저 그런 발표에 그쳤다. 하지만 수험생활을 하지 않은 후배 학우님의 발표는 달랐다. 그 친구는 애초에 그런 수험생활에서 배운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미리 철저한 자료조사를 해왔다.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민영화를 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 미국의 경우 철도 사업의 민영화 도입의 고려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더 조사해온 것이다. 그 조의 토론은 조용할 틈이 없었고, 발표 또한 매우 논리적이고 간결하며, 흐름 또한 매끄러웠다. 어려운 정책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청중들을 쉽게 이해시킨 것이다. 그 발표를 듣고 나는 그 친구가 어떤 곳에 취업하든 그 곳에서의 조직생활은 매끄러울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교수님 또한 그 발표를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대학교에 와서 수업 도중 타 학생에게 대단함을 느낀 것과 나도 주체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이 수업을 추천한다. 대학이란 본래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인의 소통의 장인데, 이 수업은 대학교의 본래의 의미에 접근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 진리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매우 매력적이다. 물론 이 수업은 데카르트나 칸트와 같은 실존에 대한 심층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아니다. 정책학

이라는 학문을 빌려 충분히 사고의 힘과 논리력,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단기적 목표인 취업을 지향하기보다 장기적 삶을 바라보고 뇌를 살찌우는 수업이다. 금강대학교에 재학 중 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삶을 키워내기 위한 거름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 수업의 장점은 무엇보다 학점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고를 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기존의 다른 수업들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본인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었다. 따라서 다른 수업에서는 학번이 높은 선배가 후배들보다 학점을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찬우 교수님의 정책학 세미나는 지식의 유무만으로 학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수업에서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지의 정도,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를 평소 꾸준히 해오는지의 여부 등을 통해 학점이 판가름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투표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번학기 정책학 세미나에서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할 부담은 없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자 하는지의 열정을 보여주지만 한다면 학점을 따는 데에는 문제없다.

이 수업의 특징은 김찬우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방식이다. 이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달리 질문과 답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오리엔테이션 주부터 시작하여 종강주까지 강조하셨던 하브루타 학습법이다. 세계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조용히 책상에 앉아 홀로 정보의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법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으로 생각과 정보의 교환으로 더 좋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교육방식이다. 김찬우 교수님이 보여준 다큐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에게도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조용히 책상에 앉아 홀로 공부하여 얻는 교육의 효과보다 탁월하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우리도 중학교 시절에 중간고사를 대비한다고 친구들과 퀴즈내고 맞추기를 했던 기억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통하며 얻는 암기의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수업방식 때문에 수업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다. 학생들은 졸리는 상태를 애써 극복하고 집중해야할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답하게 된다. 평소 자신이 금강대학교 타 수업을 듣고 오늘을 무엇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매주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

나는 이 수업을 들을 때 이미 정책학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쌓은 상태였다. 이 수업을 바람직하게 소화하기 위한 노하우는 그런 지식을 쌓고 난 뒤, 보다 좋은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아직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수업을 소화하기위한 노하우는 열정이다. 교수님이 GRIT이라는 말을 자주 강조하셨다. GRIT이란 사전적으로 투지, 노력의 꾸준함, 성실성 등으로 정의된다. 성적 같은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이번학기는 과제의 수행도나, 수업참여의 적극성 등으로 학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잘한다면 교수님에게 매우 좋은 학생으로 남을 것이라 단언한다.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했을 때, 내 역량에 대해 판단해볼 기회였다. 첫 번째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쟁점을 올바르게 짚어,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로 다른 토론참여자들과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기위한 참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세 번째로 어떤 정책에서 비롯된 통계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이 세 가지 능력 전부 다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수업에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던 것과 당황스러움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토론의 장에 스며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능력들의 발전이 있었던 증거가 아닐까?

나는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서의 삶은 취업을 위한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는 삶이 아니기를 바란다. 취업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에서의 삶은 취업만 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던 안다니던 취업의 난이도는 똑같다. 대학교에서 전공강의를 듣는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준비생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업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면 휴학을 하고 학원을 가야한다. 아직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전공지식 주입식 수업이 아닌 소통이 원활한 수업인 토론식 수업을 추천한다. 뇌를 살찌워 생각의 힘을 기르길 바란다. 그리고 취업학원의 수업이 아닌 본래 의미의 대학교의 수업이 언젠간 자신의 취업을 하고난 뒤, 인생의 장기적 행보에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최우수상 ]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 선과 다도

강동채 / 응용불교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이승남 교수 (광도스님)
교과목	선과 다도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 다양한 수업자료/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선과다도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이다.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 선과 다도



긴 비대면 수업을 끝으로 학교가 대면을 선언함과 동시에 나도 함께 복학을 하였다. 복학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것은 수강신청이었고,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는 어떤 강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수강신청 고민을 앞두고 여러 선배들에게 추천받은 강의가 있었다. 말해주는 이들과 입을 모아 엄지를 내밀었던 수업은 '선과다도'이다. 선과다도 수업은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일 특색 있는 수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수업은 광도스님께서 강의하시는 수업으로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일 앉아서 강의만 듣는 수업이 지루한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이다. 선과다도 수업을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불교에서 행하는 선수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선수행을 체험 하고 나아가 공양을 올리는 수업이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학교 도서관 뒤쪽에 위치한 국제선원(법당)에서 실습이 진행된다.

이론 수업은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법문』에서 나오는 선바라밀에 대하여 10장에 걸쳐 자세히 배운다. 사실 이론 수업을 배울 때에는 특별히 선수과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마도 수업을 듣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들을 때에는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도 듣는 학우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같이 수업을 듣는 불교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중간고사는 이론 수업에 배웠던 내용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신경 쓸 점은 중간고사 전까지 매주 제출하는 과제를 통해 시험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말고사는 실습 시험으로 진행되는데,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사실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좌우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할 때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시험에 대비해 미리 정리를 하고, 답안을 만들어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어차피 제출할 과제라면 미리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실습수업은 이론을 바탕으로 주교재 『관음참의』의 '참회의식' 실습을 배우게 된다. 앞서 중간고

사 이전에 배웠던 『석선바라밀차제법문』에 기초한 선을 닦는 것에 대해 배우는데 여기에 ‘육법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있으며,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실습수업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육법공양이란 무엇인가, 관세음보살님께 여섯 가지의 공양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여섯 가지 공양물에는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이 있으며 이들 공양물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 우선 향은 ‘해탈향(解脫香)’이라고 해서 해탈을 의미하며,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므로 회생을 뜻하기도 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하기도 한다. 등은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하며, 지혜와 회생, 광명, 찬탄을 상징한다.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찬탄을 상징하기도 한다. 과일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을 상징한다. 차는 ‘감로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한다. 먼저 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법당의 예절법에 대해 배우는데 방석에 앉는 법, 몸을 바르게 하는 법, 호흡 등 생각을 그치고 집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런 다음 직접 실습을 하면서 의식의 순서와 걷는 법, 공양을 올리는 법, 주의사항 등 육법공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교수님께서도 보통 선과다도 수업은 20~30명이 듣는 수업이라고 하셨지만, 이번 학기는 1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고, 그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각기 역할이 주어졌다. 또한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공양물 준비를 해주시면서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다도를 준비해주셨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께서는 다도의 예절에 대해 섬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사실 목소리도 조곤조곤 하시고, 고우셨던 느낌이 강해서 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이 수업은 교수님과 학부생, 대학원생이 함께하는 수업이 되었다. 육법공양 의식은 각각 수강생들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나의 역할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상법과, 운법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게 되었다. 아, 상법과 운법이란 지금 국제선원(법당)에 모셔진 가운데 부처님과 오른쪽에 계시는 상월원각대조사님께 공양을 올리는 역할을 상법이라고 하며, 공양물을 머리 위로 올려 부처님께 가지고 가는 역할을 운법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역할로는 운법을 옆에서 도와주는 운법 보조의 역할도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상월원각대조사님께 공양을 올리는 상법, 운법, 운법보조 각각 1명씩 한 조를 이루어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사실 실습 첫 수업 날은 교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시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고개가 절로 주억거리며 ‘괜찮겠는데?’, ‘잘하겠는 걸?’ 자신감이 충만했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기만 했다. 그러나 웬걸, 두 번째 시간에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해보라고 하셨고, 나와 한 조를 이룬 세 명은 앞에 나가서 걷는 동작부터 합장, 공양 올리는 법 하나하나 동작을 할 때마다 쉬운 게 하나 없었다. 특히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선 자세에서 좌우로 방향을 트는 동작이었는데 여기서 발의 방향이 참 중요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동채 발’, ‘동채 학생 발’, ‘동채 학생 그게 왜 안 되지? 이게 어려운가?’ 그때 알았다. 나는 몸치라는 것을, 정말 민망한 얼굴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팬스레 미안해졌다. 그 때문인지 정말 그 후로 걷는 법과 발을 맞추는 연습만 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로 합을 맞출 때마다 웬지 교수님께서 내 발만 예의주시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알았다. 그 덕분에 발 방향 전환 만큼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지적을 받는 일은 없었다. 참회의식을 마치면 다함께 뒷정리를 한 다음,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음식과 부처님 전에 올렸던 공양을 퇴공(退供)하여 동그랗게 둘러앉아 다과시간을 가진다. 아마도 수업시간 중 이 시간이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일체감을 갖게 한다.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는 못해도 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되기도 하며, 기쁨과 슬픔까지도 공유하게 된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엔 적대감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주는 듯하다. 이렇듯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진지한 태도와 책임감'이라고 답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수업은 교수님과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함께 참여한 수업이었다.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 우리는 1시간 정도 일찍이 법당으로 올라갔다. 그 이유는 수업 때 진행될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수업이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는 게 아닌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하셨다. 그 말 속에서 나는 깊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물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완전한 의식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긴 했지만, 그것은 나의 책임감 문제이고, 또한 교수님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괜스레 미안해지는 마음이 같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 이 강의에서는 예절과 수행에 대해 학습하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수업은 그저 '꿀강의'로만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나는 이 수업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무거운 수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진중하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야 하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기왕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면 단순히 수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이 수업을 들었던 선배들에게 추천을 받았을 때에, 참회의식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실히 임하면 원하는 바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어 더욱 열심히 임했던 것 같다. 물론 열심히 하라는 말 대신에 한 듯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내가 짓는 죄도 다 내가 받

게 될 것이고, 내가 짓는 공덕도 다 내가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임하기보단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더욱 이 수업이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소통과 상호작용’ 앞서 언급했듯이 이 수업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서로가 마음을 모아 수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상법과 운법 그리고 운법 보조는 셋이서 줄을 지어 걷기 때문에 걷는 폭과 발을 맞춰 걸어야 해서 셋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첫 발을 내딛을 때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기준으로 반대발이 먼저 나가야 하는데, 앞사람이 실수로 다른 발이 나가 틀렸다고 해서 뒷사람이 바르게 걷는 모양새가 아닌, 틀렸던 앞사람의 발에 맞춰 걸어야 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셋이 아닌 하나처럼 조화롭게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상법, 운법, 운법보조 와도 거리가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육법공양을 올릴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했다. 때문에 우리 셋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매일은 아니지만 수업 전날이나 수업을 마친 후에 연습에 또 연습을 하였다. 맹연습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매순간 경쟁의 삶속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만큼은 경쟁의식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의식 내내 침묵하며 서로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특히 나의 마음가짐은 이 강의를 들은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좋게 비추어질 수도 있고,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나는 후자였던 것 같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끌어안고 살았던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항상 쫓대 있고 어느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는 똑심 있는 성격이 부러웠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난 후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정말 이렇다 정해진 답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는 의식을 진행할 때는 걷는 동작 하나하나 생각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어지러웠던 마음을 비우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뭔가 달라졌는데?', '차분해진 거 같아', '밝아 졌어' 한 마디씩 던져주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보니 '아, 내가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 달라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선과다도 수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가히 말할 수가 없지만, 혹여나 누군가가 듣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정말 엄지를 내밀고 적극 추천하는 바다.



## [ 최우수상 ]

금강(金剛),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윤리의식을 위하여

이수복 / 불교인문학부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배경아 교수
교과목	불교윤리학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불교윤리학 수업은 투명하고 단단한 윤리의식의 제련장(製鍊場)이다.		



# 금강(金剛),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윤리의식을 위하여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大選)이 반년 남짓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 땅의 정치 지형을 양분하는 여야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도 모두 선출되었고, 그 공방이 치열한 와중에 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나라의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는 언제나 정책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과 그 주변인들의 윤리(倫理) 문제이다. 이 자리에 새삼 정치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윤리는 사회 전반의 굵직한 문제들로부터 개인의 일상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며 흐르는 묵직한 통주저음(通奏低音, Basso Continuo)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불교윤리학’은 이토록 중요한 윤리라는 영역을 불교라는 렌즈를 통하여 조망해보는 일종의 응용학문이다. 사실 이제 와 토로(?)하는 것이지만 아직 1학년인데 벌써부터 전공과목을 수강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2학기 대면 수업이 결정되고 나서 수강 신청을 하면서, 학교에서 멘토로 지정해준 학과 선배와 시간표를 짜는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 전공과목을 한 과목쯤 미리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조언을 듣게 된 것이다. 그러한 선배의 조언에 일견 수강하면서 전공과목들을 살펴보는 도중 ‘불교윤리학’이라는 강의명이 눈에 들어왔고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 서른셋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불교학자를 꿈꾸며 금강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필자는 경찰이셨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 이 있다. 범죄를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당연히 법학(法學)에 대한 일정한 소양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법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윤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법은 도덕(윤리)의 최소한이다.”라는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Georg Jellinek)의 유명한 법언(法言)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과 윤리는 둘 다 인간의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규율하기 위한 사회 규범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엔 법학도로서, 지금은 불교학도로서 윤리라는 주제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해왔기에, 역설적으로 ‘불교윤리학’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주저나 고민도 필요 없었다.

‘불교윤리학’ 수업은 배경아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수업이다. 교수님께서서는 방대한 불교학의

영역 안에서도 ‘불교인식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이성적(理性的)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철학에서도 논리학은, 그러한 투명한 이성의 결정(結晶)이자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분야로 얼핏 차가운 느낌을 주기 쉽지만,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불교학과 전공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 전공자는 나 하나뿐이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점을 십분 감안, 타과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불교 술어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엔 그 의미를 소상히 풀어서 수업을 진행하셨다. 수업 시간의 대부분은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 미숙하고 때로는 치기 어린(?) 듯한 의견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주의 깊게 청청하시는 모습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의 존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불교윤리학’ 수업의 대부분은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수업을 받아왔다. 따라서 그러한 수동적, 피동적 수업에 익숙하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이런 수업이 다소 어색하고, 경우에 따라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이 다소 어려울 뿐, 나중엔 적응하기 나름이며 결국은 적응하게 되는 법이다. 개인적으로 대학의 수업은 되도록 이렇게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자기를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당장 금강대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면접에서 교수님의 여러 질문에 의견을 표했던 기억이 난다. 대입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 취업, 승진심사 등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터닝포인트 마다 자

소속 / 분과	본교 / 오프라인
강의요약	불교윤리학은 윤리적 현상이 필요한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불교적 원리(가치)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윤리학의 범위는 가정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공동체 윤리 등 모든 영역에 걸쳐있고 적용되는 불교의 원리 또한 경건, 자비, 불평등 극복한다. 윤리적 현상에 필요한 윤리를 잘 가져온 사람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불교적 윤리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불교윤리학의 의미와 적용 분야를 본다.
수업목표	1. 원리와 불교윤리의 의미를 비교해 보고 윤리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를 이해 고찰해 본다. 2. 불교의 교리적 원리(가치)가 되는 윤리적인 가치들이 일상적 윤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고찰한다. 3. 윤리원리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원리로서 자비(자비심)에 대해 이해하고 고찰한다. 4. 일상의 윤리학적 차이에 불교윤리를 적용해 보고 고찰한다. 5. 자신의 행위를 자비와 공동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을 습득한다.
수업진행방식	1. 먼저 수업의 내용을 잘 공부해 본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업자료 활용한다. 윤리적 이론 재산적 이해, 이론, 재고찰하고 2.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잘 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 토론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3. 일어난 대안성,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수업을 진행한다. 4. 일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순서를 이해하고 토론한다.
출석과제물	
학습평가	1. 출석 (출석 1~1.5 / 지각1번~1.5 / 지각2번 ~ 출석1번) 2. 중간고사 : 발표 3. 기말고사 : 보고서 제출 4. 과제 및 참여도

#### ▲ LMS에 올라온 불교윤리학 강의계획서



신의 의견을 유창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면접 등의 상황에서 대개 질문의 주를 이루며 언급되는 주제는 다름 아닌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에 관한 것이다.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 내의 집단으로서, 그러한 집단 내 여러 구성원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고 그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윤리 규범 및 윤리적 인간이 요청되는 것이다. ‘불교윤리학’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색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자연히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수업의 방식을 언급했으니 그 내용과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수업의 주교재로 영국의 불교학자 피터 하비가 쓰고 허남결 선생님이 번역하신 『불교윤리학 입문(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CIR)』이란 책이 강의계획서에도 올라 있다. 교수님께서도 첫 수업 때 소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보면 될 듯하다. 실제 수업은 배경아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PPT 자료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주교재의 목차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대략 이러한 순서에 따라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먼저 윤리와 관련한 불교의 세 가지 기본적인 입각점, 그러니까 ①까르마, ②계율, ③대승보살도에 대해 먼저 배운 뒤에 ④가정윤리, ⑤경제윤리, ⑥사회윤리 등 개별 영역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총론에서 각론으로, 불교의 논리에서 불교의 윤리로 나아가간다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다음은 평가방식인데, 대부분의 학교 강의를 시험을 주요 평가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 불교윤리학 수업은 한 학기에 걸친 리액션페이퍼(보고서) 작성으로 평가를

주제	강의내용 및 강의자료	학습시간
1-1회	입문 소개: 불교와 윤리학 강의	15
2-1회	불교의 윤리적 판단기준 1: 까르마 강의, 토론	15
3-1회	불교의 윤리적 판단기준 2: 계율 강의, 발표, 토론	15
4-1회	불교의 윤리적 판단기준 3: 대승의 보살도 강의, 발표, 토론	15
5-1회	불교의 가정윤리 강의, 발표, 토론	15
6-1회	불교의 경제윤리 1: 생계유지 강의, 발표, 토론	15
7-1회	불교의 경제윤리 2: 자본주의와 경제윤리 2강한 특강(강연)	15
8-1회	생각교과, 종교교과 비교에 특강(강연)	15
9-1회	불교의 정치윤리 강의, 발표, 토론	15
10-1회	불교의 사회윤리 1: 노동윤리 강의, 발표, 토론	15
11-1회	불교의 사회윤리 2: 자비 강의, 발표, 토론	15

▲ 주차별 강의주제 및 내용. 이외에도 자살과 안락사, 성평등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한다. 과제와 시험이 일체화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제와 시험의 이중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의 최종분량이 7장으로 결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 발표를 하고, 기말고사 기간 때 최종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수업방식과 그 내용을 통해 실로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LOTUS 핵심역량'이란 것이 있다. 단언컨대 배경아 교수님의 '불교윤리학' 수업은 소위 'LOTUS 핵심역량'의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같은 이슈에 관한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기를 수 있으며, 글의 서두에 언급했듯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직면한 정치 상황 등 제반 환경을 관통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지식을 축적함과 동시에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어 봄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과 사색을 통해 보다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꿈꾸며 혁신을 추구하게 되고, 윤리에 대한 수업이니만큼 윤리의식을 키워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올바른 윤리의식이 진정한 공감과 협업의 바탕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불교학자를 꿈꾸는 사람으로 귀감이 될만한 배경아 교수님같이 진실하고 성실한 선배 학자분을 뵈게 된 것은 정말 의미 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평소에도 여러 윤리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진 편이었지만, '불교윤리학' 수업을 진행해나가면서 이러한 윤리 문제가 더욱 절실한 실존적 화두(話頭)로 다가오게 되었다. 사실 원래는 기초불교학에 관심이 많았고, 응용불교학엔 다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불교윤리학 같은 응용불교학에도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앞으로도 응용불교학과와 전공수업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들어보려 한다.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불교윤리학 수업은 언제나 기다려지던 수업 중의 하나였다. 앞서 밝혔듯이 원래부터 윤리라는 주제에 대해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져오기도 했고, 교수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강의방식이 수업에 자기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수업 노하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따로 없고,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런 저런 윤리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해두게 꽤 도움이 된 것 같다. 그와 더불어 주교재를 비롯하여 교수님이 수업 중 소개해주신 책들을 도서관서 빌려 읽은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주교재를 수업 진도에 맞춰 따라가며 읽으면 수업 중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될 리포트(보고서) 작성에도 꽤 도움이 되기에 추천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간이 된다면 불교나 윤리에 관해 손이 가는 책들을 추가적으로 빌려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뜻깊은 수업이었다.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수업의 대부분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매시간이 에피소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출신 과나 면면이 다들 달라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때론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론 서로 공감하면서, 교수님과도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야말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하는 리액션페이퍼 과제 역시,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남겨 주었다. 예전부터 개고기 식용 찬반 문제에 있어 불교도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나름의 입론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외에도 수업과 따로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교내 카페에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던 일은 잊지 못할 어느 가을날의 추억이라 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 문득 지난 일 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합격의 기쁨에 이어 설레는 마음으로 금강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시작한 일이 손에 잡힐듯한데 벌써 두 번째 학기마저 다 끝나 간다. 남은 한 해를 갈무리하러니 새삼 학교의 이름에 대해서 궁구(窮究)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우리 학교의 이름인 금강(金剛, Vajra)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단단한 광물(鑛物)이다. 그렇기에 다이아몬드는 종종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다른 광물들을 절삭(切削)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불교의 경전 중에도 금강경(金剛經)이라는 유명한 경전이 있다. 본래 이 경전의 제대로 된 명칭은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能斷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 한다. 금강처럼 견고하고 예리한 지혜의 칼로 능히 번뇌를 베어버려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경전이라는 의미다. 우리 금강대학교는 상월원각대조사(上月圓覺大祖師)의 유지(遺志)에 따라 세워진, 대한불교천태종(大韓佛教天台宗)의 종립대학으로서 정통(正統) 불교학과의 명맥(命脈)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학교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 우리 학교의 특성과 가치가 응축(凝縮)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불교윤리학’ 수업을 통해 많은 금강대 학생들이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윤리의식의 칼을 손에 얻게 되기를,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될 끝없는 고민과 번뇌의 순간들을 쾌도난마(快刀亂麻), 파죽지세(破竹之勢)의 결기(決起)로 베어버리기를 고대하며, 이만 줄문(拙文)을 마친다.





[ 우수상 ]

## 튜터링을 버무린 중국어 동시통역 도전기

김동원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유아려
교과목	중국어 회의통역 세미나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중국어 회의통역 세미나 수업은 맞춤형 사다리 이다.			



## 튜터링을 버무린 중국어 동시통역 도전기



‘동시통역’이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이다. 어떤 언어를 학습할 때 통역이란 어려워 보이면서 멋져 보이는 일이다. 예전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어를 대강은 알고 있었으나, 현지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는데 말이 정말 빨랐다. 처음에 입학 절차 비슷한 것을 행정실에서 해야 했는데, 직원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때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듣고 번역을 해줬는데 정말 고마웠다. 이때부터, 언어 학습에서 제일 멋진 일은 ‘통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 수업 수강 신청을 했다. 외국어를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는 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과목이다. 세 시간을 진행하며 난이도는 교양 수업보다는 어렵다. 그렇지만 다음에 나올 수업의 장점이자 교과목 추천 이유가 전공과목의 어려운 점을 덮어준다. 교과목 추천 이유는 다섯 가지(학생 중심 수업, 다양한 수업 자료, 원활한 상호 작용, 이해하기 쉬운 설명, 유용한 지식 전달)이다. 이러한 점이 어떻게 수업의 어려움을 덮어주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해줬을까?



첫째,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수업은 세 시간 동안 회의에 관한 통역 표현을 배우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교수님은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을 물어보며 세 시간 동안 회의에 관한 표현만 배우기엔 너무 버거울 것으로 판단하셨다.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업을 두 가지 구성으로 바꾸었다. 수업 시간 총 세 시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 회의에서 나오는 표현을 배우고 통역해본다. 세 번째 시간에는 중국 일상 회화를 익힐 수 있는 중국어 대본 자료를 공부했다. 그리고 수업 중간마다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내주셨다. 중국어 수준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를 다르게 내시면서 각각의 학생들이 중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줬다.

둘째, 교수님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해주신다. 교재가 필요 없이 회의 통역에 관한 PPT와 중국어 대본 PPT를 모두 LMS 자료실에 올려주신다. 그리고 중국어 회화 표현을 더 익히기 쉽게 유튜브의 중국어 연극 영상을 추천해주시거나 드라마를 추천해주셨다. 수업자료가 다양하고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꼭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핸드폰으로도 파일을 열어서 보거나 나중에 문서로 재편집해서 요약정리를 쉽게 해 공부할 수 있었다. PPT 안의 음성 파일이 깔려 있어 듣고 말하기 연습하기에도 좋았다.

- 국제회의 통역노트(수업 PPT 자료 5-7과) : 정리한 것 => 단어와 기본학습 내용

<5과>

09 오늘의 참석자 소개 / 10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09 오늘의 참석자 소개 : 단어

참석자 : 参会人员, 与会人士 cān huì rén shì , yù huì rén shì

대표 단장 : 代表团团长, 团长 dài biǎo tuán tuán zhǎng , tuán zhǎng

단원 : 团员 tuán yuán

존함/성함 : 尊姓大名 zūn xìng dà míng

시간 관계로 : 因时间有限, 因时间上的关系, 因时间所限

yīn shí jiān yǒu xiàn , yīn shí jiān shàng de guān xi , yīn shí jiān suǒ xiàn

시계 방향 : 顺时针方向 shùn shí zhēn fāng xiàng

시계 반대 방향 : 逆时针方向 nǐ shí zhēn fāng xiàng

~~를 대신하다 : 代替 dài tì



셋째, 원활한 상호 작용이다. 유아려 교수님은 한국어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질문해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다. 수업 시간 때 마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모르거나 헛갈리는 내용을 허투루 넘어가지 않게 해주었다.

넷째,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다. 학생들이 어떤 중국어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을 하면, 금방 눈치채시고 칠판에 중국어 표현과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써주셔서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어려운 중국어 단어는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 단어의 유의어나 반의어를 같이 써주셨다.

다섯째, 유용한 지식 전달이다. 세 번째 시간인 드라마 대본을 통해 배우는 중국어 일상 회화 시간에는 각 회차의 주제에 맞는 자기 생각을 쓰고 말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는데, 이때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다른 것은 교수님이 고쳐주신다. 기억나는 것으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글을 써보기’라는 주제가 있다. 여기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나는 语言相通的人(언어가 통하는 사람)으로 말했으나, 교수님은 그 표현보다 현지에서는 有共同语言的人(공통 언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해주었다.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현지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을 많이 고쳐주셨다.

종합해보자면, 수업의 장점은 교수님의 배려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님은 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시고 각 학생에게 유용할 정보와 자료를 주신다. 교수님의 배려로 중국어 통역을 위한 학습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했다. 또 수업 진행 방식이 말하기를 많이 하는 수업이라 좋다. 학생들은 수업에 나오는 웬만한 중국어를 다 말해본다. 중국어 드라마 대본을 말할 때가 특히 재밌다. 그리고 교수님이 각 학생에게 문제를 낼 때는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끌어올릴 정도의 알맞은 난이도여서 버겁지는 않으면서도 성장하는 느낌을 준다.

시험은 중간고사 때는 말하기 시험을 봤고, 기말고사 때는 쓰기 시험을 봤다. 두 시험 모두 수업 시간 중에 나오는 주제와 주요 문장을 학습하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담긴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서 말하거나 쓰는 것이 있다.

나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할 때는 최대한 PPT에 나와 있는 답을 보지 않고 배운 내용을 기억해내서 대답했다. 중요해 보이거나 교수님이 칠판에 써주시는 한자는 모두 노트에 필기했다. 단어를 말로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면 기억에 더 잘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금강이음새 학습튜터링’을 활용했다. 동시통역이 수업 주제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았다.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아는 동생이 보여 “OO아, 이 과목으로 튜터링 할래? 지원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학습 목표 달성하면 돈 더 준대. 이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는 동생은 흔쾌히 수락해주었고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했다. 주로 말하기를 연습했는데, 중국어를 주고받으며 녹음을 하고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며 말하기 능력을 높였다. 한 사람이 중국어를 꼭 말하면 한국어로 통역하는 연습도 했다.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학습 자료를 보며 단어를 써보기도 했다.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이 수업을 들으며 향상된 능력과 엮어 서술해보겠다.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며 향상된 능력으로는 글로벌 리더십 능력 역량 군의 외국어 능력과 나눔 능력, 지식탐구 역량 군의 정보활용능력이다.

외국어 능력은 수업 시간과 더불어 튜터링 활동을 해서 많이 향상될 수밖에 없었다.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PPT를 보지 않으면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PPT를 보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튜터링을 하는 후배와도 간단한 일상 회화를 중국어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중국어를 일상에 활용하려 했던 점이 외국어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튜터링 때 중국어 회화 연습을 한 걸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는 방법도 유용했다. 튜터링이 끝나고 내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볼 때 어떤 부분에서 버벅대는지, 어떤 부분을 잘 기억 못 하는지, 발음은 어떤지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다.

나눔 능력과 정보활용능력도 학습 튜터링과 연관이 있다. 하루는 후배와 튜터링을 하는데, 뭔가 어려워하고 버거워하는 표정이 보였다. 그래서 물어봤다. “OO아, 좀 어렵니?” 후배는 반쯤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좀 귀찮습니다.” 생각해보니 배운 내용을 PPT로 전부 보기엔 양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나마 중국에 한 학기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알아서 대강 지엽적인 내용은 넘기며 공부했지만, 후배는 중국어를 많이 배우진 않아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회의 통역 세미나 자료 중 핵심적인 문장과 단어를 뽑아 정리했고 후배에게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튜터링을 하기 전 수업 내용이 복습이 돼서 학습 효과가 두 배가 됐다. 그리고 튜터링을 하면서 중국어를 녹음하며 생긴 노하우와 학습 자료를 튜터링 교과목 게시판에 공유해서, 누군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21-2 금강이음새 학습튜터링				
<div> <div>홈</div> <div>공지사항</div> <div>활동비경산</div> <div>학습노하우자료(교)</div> </div> <div>전제</div> <div>검색어 입력</div> <div>Q 검색</div>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수
15	중국어통역학도전 5회차 공부 자료, 기말고사 대비, 단어, 통역 문물 정리 [1]	김동원	2021.12.11	3
14	중국어통역학도전 7회차 공부 자료, 중국어 시나리오 작성 (5분 역할극을 위한 시나리오) [2]	김동원	2021.11.26	3
11	중국어통역학도전 6회차 공부 자료, 중국어 시나리오 작성 #1, #2 [2]	김동원	2021.11.19	5
10	중국어통역학도전 5회차 공부 자료,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 및 시나리오 작성 단어, 중국어 서울형 대어 한글 표현 작성(#1, #2) [1]	김동원	2021.11.05	8
9	중국어통역학도전 4회차 공부 자료,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 및 시나리오 작성 단어, 중국어 서울형 대어 한글 표현 작성(#1, #2) [2]	김동원	2021.10.29	3
8	중국어 통역통역 도전 3회차, 학습 노하우, 어휘문 단어, 어려운 문장 번역해서 알려주기, 발표 고쳐주기 [1]	김동원	2021.10.29	1
7	중국어 통역통역 도전 3회차, 학습 노하우, 서로 중국어 발표 준비한 것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받기 [2]	김동원	2021.10.17	6
6	중국어 통역통역 도전 3회차, 중간 고사 전 준비 정리 [2]	김동원	2021.10.17	2

한 학기를 돌아보니, 중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하고 간간이 써보았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중국어 표현도 통역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었다. 만약, 나중에 중국 여행을 친구와 가게 된다면 친구를 위해 기본적인 중국어 번역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예전에 멋있어했던 한 친구처럼,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중국어 회화 능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유아려 교수님의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를 꼭 들어보길 추천한다. 중국어를 정말 많이 듣고 말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또, 여기에 튜터링을 버무리면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목 학습에 튜터링 제도를 활용하면 목표를 달성해 추가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더 공부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가 탕수육이라면, 튜터링 제도는 '소스'였던 것 같다.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 수업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중국어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소스를 버무린 중국어 회의 통역 세미나는 훨씬 맛있고 몸에도 잘 흡수될 것이다. 꼭 두 개를 같이 버무려서 훌륭한 중국어 사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 우수상 ]

## 토론과 발표를 통한 개인역량 강화

오현세 / 행정학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찬우 교수
교과목	정책학세미나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 다양한 교수법/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정책학세미나 수업은 비록 행정학 전공이지만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 토론과 발표를 통한 개인 역량 강화



## I. 교과목 소개 및 추천 이유

정책학세미나 수업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작용을 통해 실제로 시행되어진 행정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 실무를 경험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실제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복잡한 행정정책에 대하여 정책분석 및 평가가 중요시 되어지는 가운데 본 수업은 최적대안 선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례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해당 교과목의 교수님이 추구하시는 바로는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하면 뉘우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고"라는 모토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질문을 통해 교정을 받고 틀리는 것에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 질문 중심의 수업이다. 매회 차 수업 전, 그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예습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학우들과 토론을 나눈 후 토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 및 결론을 도출하여 발표의 시간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리 학습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토론 및 발표를 나누기 때문에 수업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수업 이전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 주의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로는 수업에 있어서 늘 질문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3회 이상 대답을 하여야 함을 강조 하셨다. 또 한 매주 다음수업에 있을 내용을 공부하고 요약본을 1장 분량으로 작성하며 이에 더해 3개의 질문지를 만들어오는 과제를 통해 수업에 있을 내용을 사전에 공부하여야 함을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학생 및 내성적인 학생의 경우와 매주 과제 수행에 제한이 되는 학생의 경우 수업 이수를 취소할 것을 권하신다. 이러한 수업 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학세미나 수업은 매주 행정사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신의 생각한 해당 행정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그 문제점에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며 제시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반박 등으로 논리적이고 그 정책사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타 수업과 다른 특색을 보여주는 해당 수업에 대하여 필자가 추천하는 바로는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예습학습이란 점이다. 강의 중심의 수업은 해당 학기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학습 내용에 심도 있게 공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습득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고 수동적으로 강의를 청취하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서 연습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토론 중심의 수업은 수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해당 그 주치의 학습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진다, 그렇기에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연습을 하게 되며 토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해당 수업에 숙지를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연습과 수업의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매주 하여야 하는 과제 또한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토론 및 발표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 타 수업을 이수하였을 때와 해당 수업 지도교수님인 김찬우 교수님의 수업의 차이점은 보다 많은 적극성과 수업의 참여도가 요구되어진 다는 점이다. 토론과 질문중심의 수업이기에 이러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들어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수업을 이수 하게 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매 주차, 매회 토론과 발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에 학습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하게 된다. 자신이 수업에 임하기 전 시간과 공을 들여 연습한 수업내용이기에 수업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공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상 또한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이 같은 주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토론을 통하다 보면 같은 주제라도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이해와 내용을 서로 공유 할 수 있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수업구조가 형성된다. 세 번째로는 많은 학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토론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준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 해당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토론을 하며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냄으로 써 좋은 발표를 만들어 그 성취감을 공유한다면 토론 파트너와의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성취감을 통해 공부의 동기 또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수업에 있을 토론을 통해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귀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시킬 수 있다.

## II. 수업 내용

해당 수업의 특징으로는 바로 ‘하부루타’식 수업이라는 것이다. 하부루타란 유대인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으로 ‘짜를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부루타 식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암기가 아닌 이해와 경쟁이 아닌 공유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 정책학세미나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을 일부 설명하자면 ‘철도민영화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등 많은 정책 사례를 다루었는데 해당 사례를 만약 강의식 수업 혹은 암기를 하여야 하는 수업이 되었다면 그 사례에 대



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해당 사례가 어려울 뿐더러 정책에 대하여도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 비판의 여지와 긍정적인 평가가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부부터 수업방식은 암기와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아닌, 앞서 설명 했듯이 자신이 수업이전에 만든 질문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며 다양한 견해, 관점, 시각을 나누어 같이 경험과 이해를 공유하는 공부이다. 그렇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어 수업 내용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을 통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고 단지 그 사례를 암기 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례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그 사례를 관통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수님의 수업방식으로는 첫 시간에는 하부부터를 하 기에 앞서 해당 주에 있을 내용에 대하여 간략 적으로 설명하였다. 여러 학자의 개념과 사상을 다양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수업에 임하기전 해당 주치의 내용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된다. 예컨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역사학적으로 설명해주어 어떠한 바탕과 계기로 계몽주의가 발전 할 수 있었는지에 다양한 견해와 시각으로 설명해주는 등 토론에 있기 전 보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이해를 하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하부부터를 진행하게 된다. 이 시간에 수업 이전에 준비해둔 질문을 나누며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공유한다. 이 때 여러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반박을 하며 논쟁을 펼친다. 그 후 제일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도출 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에 두 번째 시간은 최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나가는 토론과 논쟁으로 진행되어진다. 마지막 시간에는 해당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표를 통해 여러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공유한다. 같이 토론을 하였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와 어떠한 방향으로 최고의 질문을 해당 질문으로 선정하였고 무슨 근거로 해답을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이 때 여러 학생들이 그 발표를 경청하며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 교수님은 발표자가 정확한 근거와 어떠한 추론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에 도달하였는지 질문을 던지신다.

### Ⅲ. 수업 참여

해당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와 정보를 분석함이 중요하다. 필자는 ‘철도민영화 사례’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민영화는 대한민국에 만 특별히 발생되어진 민영화 사례가 아닌 점을 비추어 일본 및 영국에 대한 철도민영화 계기와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지기 까지 어떠한 정치적 다툼과 비리가 있었는지 또 한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진 지금 어떠한 평가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를 분석하

여 해당 수업에 임하였다. 철도민영화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사례'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조사해 감사원 및 통계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점이 하부부터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에 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다음 수업의 토론에 있을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준다는 점이다.

해당 수업에 대하여 좋은 평가와 좋은 경험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패를 무서워하여서는 안 된다.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이다. 학생이란 본디 학예를 배우고, 공부를 하며, 학문을 이해하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즉, 공부를 하려는 또는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틀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학문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틀리지 않고 모든 정답을 도출해낸다면 이미 학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틀리는 것은 당연하고 무서운 경험이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해당 수업의 교수님 또 한 이점을 본 수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하셨다.

학습 과제물에 대하여 경험해지 못하였던 특별한 과제물이 있었다. 바로 해당 수업의 시험지를 직접 출제하기였다. 해당 과제물은 출제위원의 시각으로 어떠한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를 선정해야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보다 많은 생각을 기울이게 하였다. 해당 과제에 대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과제물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전혀 아님을 경험하였다. 본인이 만든 문제가 다른 문제의 힌트가 될 수 있음이 농후하였고 적절한 난이도와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 즉, 제일 핵심적이 요소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에 해당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 그 틀을 인용하여 해당 과제에 임하여 해당 과제를 전부 마치었을 때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 되었다. 또 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자연스레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해당 사례를 망라하는 핵심요소를 스스로 분석한 점을 해당 과제의 큰 장점이라 생각하였다.

#### IV. 성장

##### (1) 지식탐구 : 정보활용능력·분석적 사고

해당 수업에 참여를 하고나서의 가장 큰 성장은 바로 역량 향상이라고 생각하였다. 타 강의식 수업은 전공지식 향상과 학술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수업은 전공수업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개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수업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에 있어

서 토론을 나누고 토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발표의 간결성과 발표를 듣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언어와 단어를 활용 하였을 때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토론식 수업이란 점을 통해 많은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그 토론에 있어서 많은 사고와 생각을 기를 수 있었다.

### (2) 글로벌리더십 : 리더십, 창의융합 : 문제해결

9주차 수업 당시 해당 토론을 진행하였을 때 많은 토론과 반박이 오간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필자의 견해와 전혀 다른 견해 혹은 모든 토론자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사고의 학생의 견해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해당 토론이 재밌었다. 학교 수업에 있어서 많은 수업을 겪었지만 그 주차에서 만큼의 재미를 느낀 적이 없었다. 또 나의 사고가 한층 더 향상되어짐 또한 느끼었다. 더 나아가 해당 주차의 수업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발표가 아닌 전체토론을 하였다. 이 점 또한 교수님이 진행시킨 것이 아닌 같이 토론에 임한 토론자들끼리 토론에 대하여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어 타 토론 조에게 전체토론 할 것을 권하며 전체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전체토론을 할 때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진해서 전체토론을 진행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토론을 하 기 위해 자리 구성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 해당 토론을 자연스레 이끌기 위해서 먼저 나서 본인이 구성하던 토론조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타 조의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유도하였다. 갑작스러운 전체가 같이 하는 토론에 낯설어 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토론에 참여 할 수 있게 이끌어 필자 스스로에 대하여 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느끼었다.

### (3) 공감협업 : 의사소통능력

말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닌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지 또 한 나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토론을 하였을 때 더 합리적이고 검증되어진 사례를 조사하여 토론을 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첫 수업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과 마지막 주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이 성장하였음을 느끼었다. 높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좋은 수업이란 단순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전공을 넘어서 타 학문 및 다른 분야에 적용되었을 때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 생각하였다.

## V. 참고문헌

전성수·고현승. (2015), 「질문이 있는 교실 : 중등편」, 경향BP.





## [ 우수상 ]

### 중도(中道)로 가는 길

정지윤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이승남 교수 (광도스님)
교과목	선과 다도		
추천 이유	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선과 다도 수업은 마음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는 수업 이다		



## 중도(中道)로 가는 길



### 1. 교과목 소개 및 추천 이유

선과 다도 수업은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교수님의 강의로 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생소한 불교학적인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고, 딱딱할 것만 같은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 강의해 주셨다. 또한 1주차에서 7주차에서 매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과제로 내주시는데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저질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 좋았다. 나는 막상 기숙사로 가면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해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침대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방 안에서 다시 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과제'라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강제복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교수님이 과제를 매주 꼼꼼히 검사하시고, 과제가 성적평가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하셔서 매주 더 긴장해서 과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매주 복습과제를 하고, 과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나가면서 불교학에 무지했던 내가 조금씩 불교학적인 지식이 축적됨을 느꼈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이 선과 다도 수강생들이 매주 수행했던 과제에서 중간고사가 출제된다고 공지를 미리 해주셔서 매주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던 나는 별무리 없이 중간고사에 임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중간고사때 시험을 6개를 봤는데 선과 다도를 매주 집중해서 과제를 해서 시험전날에 한 번 읽고 들어가면 되는 과목이 생겨서 그나마 마음이 가벼웠다.

8주차인 중간고사가 끝나고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선과 다도'를 실습했다. 선과 다도는 관음참의 경전에서 배운 부분을 육법공양을 해서 법당에서 직접 실습을 한다. '관음참의'는 도량을 청정히 한 뒤 관세음보살을 청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향·등·꽃·과일·차·쌀 등 여섯 가지 공양들을 올리는 행위인 육법공양(六法供養)을 하고, 인간의 감각기관인 육근(六根)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는 수행법인 육근참회(六根懺悔)를 하며,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주문처럼 외우는 관음기도인 관음주송(觀音呪誦)으로 공(空)이나 가(假)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제(中際)를 해서 서로 걸림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는 삼제원융(三諦圓融)의 실상을 깨닫는 행법이다.

나는 육법공양을 올리기 전에 '산화'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산화'는 수업시간보다 40분정도 일찍 와서 꽃잎을 따서 바구니에 넣어놓고, 꽃을 드리는 예법을 몸에 익힌 뒤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직접 꽃잎을 뿌리는 역할이다. 쉽게 말해서 '산화'는 육법공양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다. 보통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데 2시간정도 걸린다. 나머지 1시간은 공양을 드린 후에 부처님께 올렸던 음식들을 교수님과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차(茶)'를 마신다. '차(茶)'를 마시면서 대학원생과 자주 담소를 나누었는데 13주차에 대학원생이 자신이 아는 지인 분 중에서 병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병에 걸린 지인이 매주 '차(茶)'를 즐겨 마시면서 병이 실제로 나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흥미로웠다. '차(茶)'가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병까지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도 '차(茶)'마시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육법공양을 올린 뒤에 먹는 '차(茶)'와 과일 등은 딱딱하고 삭막한 수업에 지쳐있던 나에게 있어서는 나름 피로회복제의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대학원생들이 먹을 것을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했다. 15주차시에는 기말고사를 보았다. 기말고사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배웠던 '관음참의'를 기반으로 한 육법공양을 실습으로 시험을 보았다.

정리하자면, 선과 다도 수업은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혀주고 실습을 통해 육법공양 등 불교에 대한 예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차(茶)'를 마시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누적된 피로와 원기회복을 하고 싶은 학우들에게도 '선과 다도' 수업을 추천한다.

## 2. 수업내용

광도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좋은 말씀을 자주 해주신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중도(中道)를 해라.”였다. 나는 4학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취직걱정이 앞섰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고 공부 안하고 매일 기도만 드리면 절대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다. 공부에 정진할 때 힘들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이짐으로 마음을 비우고 묵묵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다.

“중도(中道)를 해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 하셨다. ‘중도(中道)’는 불교의 근본 입장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길이다. 내가 선과 다도를 수강할 당시에 친구와 서



로 오해가 있어서 감정이 토라진 시기가 있었는데 마음이 심란할 때 교수님이 “중도(中道)를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았다. 떨어진 친구랑 마주할 때마다 괴로웠는데 티를 내봤자 나만 손해인 것 같아서 티를 안내려고 애를 썼었다. 하지만 나는 떨어진 친구를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고, 그 친구를 마주할 때마다 힘들었다. 나는 양극단을 배제(부정)하고서 균형을 찾고,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중도(中道)’의 마음을 가지고 싶었지만 ‘중도(中道)’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4주차시에 교수님이 학생들이 지쳐 보였는지 ‘중도(中道)’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해주셨다. 교수님께서 살다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만나서 괴로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만나서 괴로울 것이라고 하셨다. 교수님에게 나의 사연을 말한 적도 없었는데 마치 나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너무 공감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도 괴로웠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괴로웠다. 어떤 인간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야 즉, 중도(中道)로 가는 것이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깨우쳐주신 광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 말이 공부에 전념해야하는 나에게 있어서 복잡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준 수업이라 감사했다.

또한 광도 교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선과 다도 수업과 관련된 깨달음을 주는 책을 소개시켜 준다는 부분에 있었다. 하루는 교수님이 학생들이 지쳐보였는지 “앙굴리마라”라는 책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들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앙굴리마라는 무서운 살인자가 있는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어느 날 앙굴리마라가 갑자기 칼을 치켜들고 나타나 부처님께로 달려가는데 부처님은 걸어갔다고 한다. 앙굴리마라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으나 이상하게도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앙굴라마라가 부처님에게 오라고 소리쳤는데 부처님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앙굴리마라를 바라보았고 그는 부처님의 자비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을 대하자 한 발짝도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조금 전까지의 살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이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한다. “앙굴리마라여,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추어 있다. 너는 어리석어 무수한 인간의 생명을 해쳐 왔고 나를 해치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추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 너를 가없이 여겨 여기에 왔다.” 이 말을 듣자 앙굴리마라는 문득 악몽에서 깨어나 제 정신으로 돌아왔고, 그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했고, 부처님께 용서를 빌면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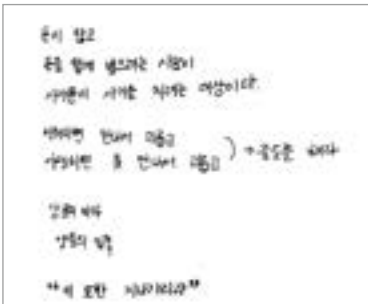
나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앙굴리마라라는 책의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먼저 멈추고 앙굴리마

라도 따라서 멈추는 장면을 들으면서 스승은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우쳤고, 최고의 스승은 제일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마라에게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인 중도(中道)에 가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앙굴리마라가 사람들을 죽일동안 부처님이 그 이전에 앙굴리마라에게 깨우침을 줘서 많은 살인을 막았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부처님은 앙굴리마라의 살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고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광도 교수님이 책 내용을 풀어주셔서 부처님과 앙굴리마라 대해 저절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고,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뒀을 느꼈다. 또한 학생들이 피곤해하는 것을 몸소 느끼셔서 학생들 잠을 깨우려고 재밌는 책을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했고 나는 잠이 확 달아나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신다.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교수님의 질문은 “살인자에게 사형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지신 거였다. 교수님께서 먼저 최근에 화성연쇄살인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 살인자에 대한 살인자의 사형제도를 반대하신다고 하셨다. 물론 윤성여씨의 사연은 마음 아프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 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오판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여겨지고,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아서 감옥에 있으면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랑 그의 가족들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수님이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 ‘살인’을 한다는 행위는 각각의 개인을 존중해 주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안됨으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닐까? 상대방도 몇 십년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 그러니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줘야하는데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 ‘살인’이 발생하는 것 같다. 결국에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기(살인자) 뜻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단지 상대방을 소유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은 각각의 개인이지 소유물이 아닌데 자신 이외의 사람을 얼마나 쉽게 생각을 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 3. 수업참여

선과 다도 수업은 내가 들었던 과목 중에서 유일한 불교학 수업이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 닿은 말들을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필기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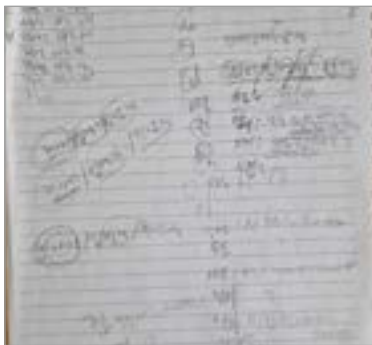
교수님이 추천하신 “앙굴리마라”라는 책인데 부처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불교를 수강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려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다. 처음에 교수님이 불교와 관련된 난해한 질문만 하실 줄 알았는데 수업시간에 배웠던 쉬운 불교학적인 질문이나 윤리와 사상 또는 역사와 관련된 질문을 수업시간에 하셔서 대답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의 한도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주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이 없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교수님이 무안하실까봐 대답한 측면도 있었다.

중간고사를 볼 때 불교용어랑 불교에 관한 문장들을 외워야 할 부분이 통으로 암기가 되어있어야 시험에서 서술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과 불교 용어들을 전부 외워야 했다. 암기에 자신이 있는 나는 두문글자를 따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외우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잘 남아서 연필로 적어가면서 외웠다. 문장을 외우는 것은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벅찬 일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용어를 어느정도 숙지를 한 뒤에 문장이 되도록 살을 붙여가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했다. 문장을 한 번에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한 프린트물을 A4용지로 덮고 노트에 써보면서 어느 부분이 외워졌는지 어느 부분이 안외워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외워진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외웠다. 그런식으로 5번정도 하니 글쓰기에 완벽해 졌다. 또한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에는 빨간펜으로 표시를 해서 눈에 띄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았다. 빨간펜으로 틀린 부분을 체크하면 어느 부분에서 계속 틀리는지 눈에 확 들어와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해서 불교용어를 중심으로 뼈대에 살을 붙여가면서 외우기도 했다.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외우다보면 단어와 연관된 문장이 머릿속에 저절로 형성이 된다. 내가 공부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말고사는 교과서인 ‘관음참의’를 통해서 9주차부터 15주차까지 매주 법당에 가서 실습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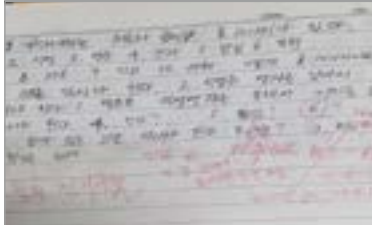
고, 실습한 자세를 외워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특히 실습을 할 때는 교수님이 모두 다 처음 이라고 여겨주셔서 처음 배운다는 가정 하에 시작해서 하나하나 전부 알려주시니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내가 실습할 때 '산화'의 꽃 뿌릴 때의 자세가 잘안되서 대학원생 분들에게도 자세가 이게 맞는지 계속 물어보고, 유튜브에서 '산화'의 자세를 검색해서 다른 분들이 '관음참의' 드리는 자세를 다시 보고 배우고 기숙사 방 안에서 직접 외웠던 자세를 익혔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교과서 보고 암기했다. 또한 나는 육법공양을 드릴 때 발의 자세가 헛갈려서 교수님과 대학원생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많이 물어봤다. 나는 주로 발의 자세 중 돌때가 가장 헛갈렸는데 교수님이 내가 발을 돌릴 때 실수하는 것을 눈치 채셨는지 수업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발의 돌리는 자세를 외웠다가 쉬는 시간마다 스스로 익히려고 노력했다. 나중에는 몸이 익어서 머리로는 생각 안 해도 정확한 자세가 나와서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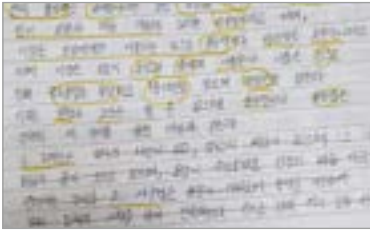
불교용어와 문장을 두문글자를 따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외우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잘 남아서  
연필로 적어가면서 외웠다.



문장들은 한 번에 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머릿속에 외웠던 문장들을 A4용지들을 가리고  
같은 내용을 썼지만 문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한 5번 정도 암기해서 직접 쓰다보면  
거의 내용은 유사해진다.



틀리는 부분을 빨간펜으로 표시를 해둬서  
틀리는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였고,  
틀린부분을 위주로 반복 숙달하였다.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해서 불교용어를 중심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외우기도 했다.  
이런식으로 용어에 살을 붙여가면서 외우면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온다.

#### 4. 성장

처음에는 불교는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선과 다도”를 통해서 불교는 인문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불교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매주 법당에 다니면서 정신수양도 하고, 불교예절인 그릇 닦는 법과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의 자세 등을 배우고, 법당 갈 때마다 광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하시는 마음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에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렸다. 또한 선과 다도 수업을 통해 선업을 쌓고,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교수님이 음식을 남기면 다음생에 가축으로 태어난다고 하셔서 깊이 세게듣고 되도록이면 음식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교수님이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해충들도 죽이지 않아야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나는 모기와 같은 해충을 보면 에프킬라를 분사했는데 이제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해충도 죽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업이랑 교우관계로 마음고생을 하였지만 “중도(中道)”의 깨달음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선과 다도를 통해서 수강 전의 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한 층 더 성장한 나를 보게 되어서 뿌듯했다.

LOTUS 핵심역량에 있어서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던지는 생각을 일깨우는 질문들을 듣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측면을 보면서 글로벌리더십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교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동시에 교수님과의 작지만 강한 토론에 있어서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처음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는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질문을 안 던지시면 어색했다. 또한 가끔 던지지 던지시는 질문을 통해 나에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셔서 사고의 폭을 확장됨을 느꼈고, 내가 교수님이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분석적인 사고를 강화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관음참의는 선과 다도의 교과서이다.  
산화와 육법공양을 올리는 방법 등이 나와 있고,  
참회의식(懺悔儀式)을 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된 책이다.  
책이 가벼워서 소지하기 편하다.



옆의 사진은 법당에 앉아있는 사진이다.  
법당에서 기도드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수양도 하고, 불교 예절을 배웠다.



옆의 사진은 법당에서 육법공양을 드릴 때의 사진이다.  
법당에서 육법공양을 드릴 때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물어보면 광도 교수님과  
대학원생 분들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주셔서 감사했다.



## [ 장려상 ]

**#살아있다**

김동헌 /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정문기 교수
교과목	국제운송론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혼자 들어본 이 수업은 미래를 위한 발판 이다.		





## #살아있다



나는 이 학교에 사실상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국통’이다. 지금은 ‘국통’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라고 하겠지. 국제통상학과는 내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다음가는 인원도 많고, 대단한 선배님들도 많은 유망한 학과였다. 특히 무역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국가 경제의 중심이기에 더욱 국통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같이 무역을 진로로 잡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학교생활 중 정말 많이 의지했던 교수님들도 한분 한분 학교에서 뵈 수 없었다. 진짜 통상을 배우는 과목은 몇 과목 개설도 되지 않고, 무역에 관한 전공을 영어로 설명해주셔야 할 외국인 교수님들의 수업은 단순히 졸업을 위한 줄인 과목으로만 수강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옛날 통번역학과가 있었을 때처럼 본격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아닌 것 같다. 단순히 학생들 수준에 맞게, 졸업해야 하니깐 의무적으로 듣는 듯한 느낌이 강한 수업들이다. 학습 의욕이 생길 리가 없다. 결국, 나는 **혼자이다**. 무역을 진로로 잡고 혼자 무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 및 공부하며,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찾는다. 그 누구도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줄 수 없었다. 답답한 하루하루였다. 그렇게 막 학기가 되었다.

난 졸업까지 단 한 과목만 남겨두고 있었다. 학점은 좋지 않지만, 수업이라도 많이 들어온 스스로에게 상을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막학기인거 2학년 수업이나 들으면서 편하게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국제운송론**’을 별 기대 없이 수강 신청하였다. 수강 신청 종료 하루 전, 신청 인원은 단 ‘**3명**’. “어? 이거 개설되려나... 안되면 전화 오겠지 뭐.” 수강 신청 종료 1시간 전, 신청 인원 ‘**1명**’. “어... 이거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다른 거 신청해야 하나? 아 몰라 막학기인데 설마 졸업생을 버리겠어?” 역시 학교는 날 버리지 않았다. 무려 ‘**한 명**’인 수업을 개설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무한한 감동이 밀려왔지만 뒤늦게 드는 생각. “잠깐만, 이거 그럼 교수님이랑 세 시간 내내 단둘이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이게 맞는 건가?” 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채로 첫 수업을 하러 갔다.

근데 웬걸? 교수님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신 무역의 베테랑이셨다. 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

었다. 궁금한 것도 정말 많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한창 고민하는 중에 학교에서 준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교수님은 혼자인 나를 보고 조금 실망하신 듯하셨다. “동현 학생, 혹시 학교에 무역 배우는 사람들이 없나요?” 나는 “저 혼자입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OT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이 기회를 살리고자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질문을 여쭙보았다. “교수님의 직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포워딩이나 해외사업팀, 통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나요?”, “이러한 분야로 가기 위해 무슨 자격증이 가산점이 높을까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교수님은 수많은 질문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사실상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갔다. 그래도 난 괜찮았다. 위에서 말했듯이 난 이 2학년 수업을 편하게 다니려고 수강한 것이다. 책의 대부분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교수님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미래의 무역종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현직의 상황과 실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무역에 관련된 최신이슈에 관해 수업시간마다 설명해주셨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중한 내용이 있었다. 무역의 특성상 세계 경제 동향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선 교수님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셨다. 우리 수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교수님이 현재 이슈들을 설명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Q&A 시간을 갖은 후, 진도를 나가는 식이었다. 교수님의 노력 덕분에 국가 공인 자격증인 무역 영어 1급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후 진행하면 좋을 자격증인 국제무역사도 추천해 주셔서 현재 2월 26일 시험을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 중이다.

여기까지 읽은 미래의 무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아니 너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깐 그렇게 질문하고 진도 대충 나가도 다 맞았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찌라는 건데?, 네가 도움 됐으니깐 추천하는 거야? 너만 도움 되면 돼?”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물론 맞다. 난 이미 이 수업의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관련된 자격증은 이 수업의 상위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 있었다면, 이 수업은 나만 좋은 수업이기에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 수업을 정말 추천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에세이의 제목이 뭐가? **‘#살아있다’**이다. 우리 학교에 무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너무 줄었다. 혹시나 무역에 관심이 생겨서 무역에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무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관심이 있는 사람도 쉽고 간단하게 무역의 전반적인 의미와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다. 단순히 물건을 외국으로 사고 파는 것이 무역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무역이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것이 무역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분야에서 정문기 교수님만큼 뛰어난 강사는 없다. 당장 현직에 계시

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접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다. 재미도 없는 전공 책의 내용을 더욱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난, 이 수업으로 인해 우리 학교 국제통상의 맥이 아직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국통은 살아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기도 할 것이다. 난해한 용어들이 나올 테고, 이해가 안 되는 이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쉽다. 누구나 택배를 시켜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①: 우리가 어느 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시키고, ②: 결제하고, ③: 판매 사이트는 물건을 택배 배사에 전달하고, ④: 택배사는 중간 HUB들을 거쳐 ⑤: 결국 그 물건이 우리 집 앞으로 도착하는 이 과정이 바로 무역이다. 이래도 어려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본 이 과정을 해외로 확장 시키면 그것이 바로 국제무역이다. 방금 본 과정을 국제무역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물건에 대한 비용을 결제한다.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 선지급은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물건을 받기 전에 결제하는 것, 동시 지급은 시장에서 봉어빵을 살 때 봉어빵을 받으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이 물건을 받음과 동시에 결제하는 것, 후지급은 신용카드처럼 결제는 되었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다음 달 혹은 그 후가 되는 방식으로 물건을 먼저 받은 후 그 후에 결제하는 것이다.

③: 매도인이 운송인(택배사)에게 물건을 전달한다.

④: 운송인(택배사)이 물건을 운송한다. -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트럭운송의 방식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된다.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을 선택하여 물건을 운송했다면 복합운송이라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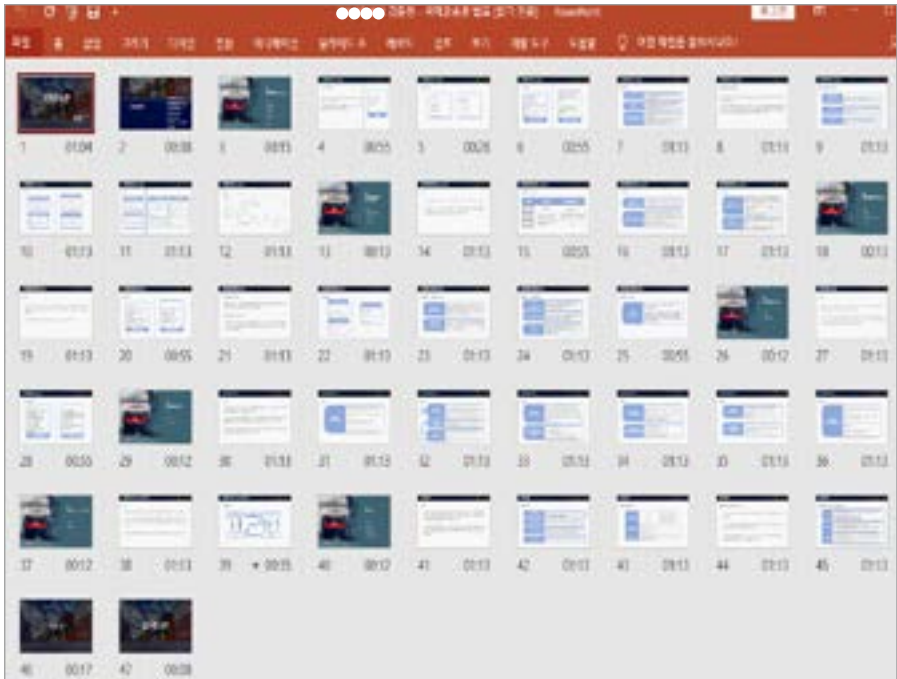
⑤: 운송인(택배사)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계한다.

이 과정이 국제무역 거래의 모든 것이다. 이 단순한 과정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아는가? 특히 주식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면 무역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여담이지만 난 이 수업을 수강하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투자한 해운 관련주 덕에 꽤 괜찮은 성과를 올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동량의 상승과 선박 및 인력의 부족으로 운임이 상당히 올랐다. 그럼으로써 선사들은 때아닌 호황기를 누리는 중이다. 이로 인해 선사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업 내용엔 없는 교수님이 현직에서 느끼고 배우신 실제 세계 물류 흐름이다. 또한, 무역은 전 세계 경제의 핵심이다. 혹시 3월에 있던 수에즈 운하 사건을 기억하는가?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항공과 선사

들의 주가는 폭등하였고, 국제유가는 약 6%가량 상승하였다. 물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던 사건이었다.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지 조금 감이 잡힐 것 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 세계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학문에 발을 디딘 것이다.

무역을 공부하기 위해 암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물론 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하나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역을 암기해 버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추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추심은 환어음을 사용해 매도인이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해,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 서류를 송부하고, 매수인은 추심은행에 어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후 서류를 인도받고,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 금액을 송금하여, 마침내 추심의뢰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후지급 결제방식이다. 이해가 되는가? 심지어 추심은 영어로 Collect 이다. 저 단어를 보면 수집? 모으다? 이런 단어만 떠올렸지 추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난 무역을 처음 공부할 때 다 외우려고만 했다. 비슷한 결제 방법인 신용장과 그 외 특수결제방식은 “아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모가 다른 거야?”라며 내용은 외웠지만, 정작 이해하지 못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틀린 개수를 세는 것보다 맞은 개수를 세는 것이 더 빨랐다. 결국, 다시 처음부터 이해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앞으로 배울 학생들은 나처럼 미련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과정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도 진행하게 된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갖고 30분 정도 발표를 한다. 나의 주제는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및 생성, 역할, 법적 성질, 발행형식, 배서, 기재사항, 해상화물운송장과 국제조약, 클레임 개요 및 처리, 인코텀즈, 신용장거래, 해상보험’이었다. 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오는 주제의 양이다. 실제로 난 인코텀즈 하나만 가지고 발표를 해도 30분 이상은 할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나의 최종 ppt는 옆에 보이는 것처럼 47장이 되었다. 발표시간만 50분이 넘었었다. 분량을 조절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한 주제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발표를 준비하며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은 없다. 발표를 잘하지 못해도 Q&A 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한다면 그 발표는 성공한 발표이다. 성적 부분에서도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맡은 주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다. 난 그러지 못하고 국어책을 읽고 왔다. 하지만 후



에 다시 돌아보며 복습을 한 덕에 내가 준비한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우칠 수 있었다.

이 수업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의 'Collect'와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무역업계에선 다른 뜻으로 쓰이는 용어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준비해주시는 다양한 시사들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기 수월한 내용이 많다. 2학년 수업인 것을 고려한다면 수업 초반엔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사 상식이 쌓여 중반 이후부터 탄력이 붙어 더 쉽게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들은 추후 무역을 공부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포워딩이라는 운송업자의 직무를 정확히 바라보게 되었다. 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준비하는 직군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조금은 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반성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리며

정보를 얻을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요구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바뀌는 직업이기에 사회 이슈에 매우 밝아야 한다.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무역은 특히 실무자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난 수업을 혼자 들으며 조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앞으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나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길 바란다. 특히 글로벌지역통상학과와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는데, 정문기 교수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분명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학기의 통상은 나 혼자였지만 앞으로 우리 학교의 통상은 몇 년 전의 국제통상처럼 화려하게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무역을 업종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 지금 포워딩과 물류업계는 다신 없을 호황기를 누리는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과 집안에서 생활하는 문화로 인한 물류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운임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에 따라 물류회사가 성장하고, 그곳에 다니는 직원들의 월급도 같이 성장하는 중이다. 무역을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은 국제무역 흐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이 수업에 열정을 갖고 수강한다면 무역 지식의 단단한 토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통의 규모가 매우 작아졌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무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기본부터 배우며 지식을 쌓아 훌륭한 동기와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지탱하는 역할을 맡길 바란다. 그 첫걸음이 국제운송론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국통#살아있다#무역#국제운송론#정문기교수님#실무#세계이슈#포워딩#물류#SCM#자격증**



## [ 장려상 ]

# 세계를 향한 창문이 되어준, 공직자실무영어

김수림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최창현 교수
교과목	공직자실무영어 II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 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공직자실무영어 수업은 나의 가능성을 일깨워준 수업이다.		





## 세계를 향한 창문이 되어준, 공직자실무영어



4학년이 되고나니 예전보다 확실히 자격증에 관심이 많아졌고, 욕심이 생겼다. 아직 꿈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격증을 따놓으면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취업시장에서도 가점이 될거라고 생각했다. 자격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부터 취득하고자 했는데 마침 <공직자실무영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직장 또는 실무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 표현 그리고 문법까지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되어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다.

간단한 교과목 소개를 하자면 <공직자실무영어> 과목은 각종 공무원 시험의 필수 시험과목으로서 영어가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이다. 최창현 교수님께서서는 과거에 미국 유학뿐만 아니라 TOEIC, TOEFL, GRE와 같은 다양한 영어시험을 본 경험 그리고 파고다 외국어 학원에서의 TOEIC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학과에 공무원영어라는 과목을 개설하셔서 학생들에게 토익, 토플 그리고 공무원 영어 시험 등에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다. 특히 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렵고 불필요한 거품을 빼서 50문장 정도의 영문법 예문을 활용하여 토익과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해주신다.

수업목표는 학생들이 영문법으로 토익 문제와 공무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획득하여 자신이 필요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하게 합격하는 것,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복수학위를 준비하기 위한 토플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수업의 장점으로는 먼저 교수님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래 캡처 화면처럼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만 해주시는게 아니라 대답과 더불어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합쳐서 “시험봐줘서 고마워요”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교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으니 더욱이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열정이 샘솟았다.



두 번째 장점은 시험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자체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커리큘럼 또한 공무원 영어시험, 토익 그리고 토플 등에 모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복습한결과 중간, 기말고사 시험뿐만 아니라 잠시 후 언급할 영어공인 인증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세 번째 장점은 풍부한 자료다. 교수님께서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형 어학학원인 파고다에서 영어를 가르친 강사이셨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자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구분하고 선별하며 공부해야만 효율적으로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다. 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내용을 LMS에 올려주신다.

교수님은 수업의 장점에서 다룬 것처럼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며 진심을 담아서 학생들과 소통하신다. 위에 캡처본을 보면 수업자료뿐만 아니라 1번에 퀴즈 Reminder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직실무영어는 1학과와 2학기 모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니 혹시 잊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리마인더까지 올려주셔서 학생들이 <공직자실무영어>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그리고 수업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팝송 노래가사, 동기부여 문구, 드라마와 영화

2023-2학기2 공직실무영어1 (24학번) -

과목공지

제목: [ ] 검색: [ ]

총 11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	11주 12월 복고 Revisited	최광현	2023.11.28	1
10	9주 중간고사제 11과 복고시험	최광현	2023.11.20	20
9	취업한 학생들 공지	최광현	2023.11.13	3
8	중간고사 공부할때 글	최광현	2023.10.23	14
7	영어 복고 정리할때 글	최광현	2023.10.23	14
6	가을학기 복고할때 복고 복습글	최광현	2023.10.14	13
5	exam 평소 평문	최광현	2023.10.09	17
4	2학년 2학기 수업하는 강의 동영상 복고 하였습니다	최광현	2023.10.04	13
3	수업자료 글	최광현	2023.10.03	16
2	수업나 어휘를 올게요	최광현	2023.10.03	23
1	공공기관 시험본 정리한대	최광현	2023.10.03	21

같은 영상물을 통해 우리가 배운 문법을 오감으로 체감하게 해주신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배운 표현이 들어간 팝송을 틀어주시는데 이를 들으면서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지 바로 와닿는다.

평가방식은 중간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는 퀴즈(꼭지시험), 기말고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은 보너스 점수를 챙길 수 있다. 방법은 교재에 나와있는 단어 및 예문을 노트에 정리해서 교수님께 제출하면 된다.

나는 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후 자료실에 올라온 자료들을 복습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에 대비했다. 2학기 성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직실무영어1의 성적은 A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영어 자격증까지 따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배웠을 때는 생소해서 한 번에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았다. 그래서 무의식중에 표현을 암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외운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외국어 공부 꿀팁이다.

<공직자실무영어> 과목은 LOTUS 핵심역량 강화 능력으로 글로벌리더쉽에서 외국어능력, 지식탐구에서는 환경변화적응력, 창의융합에서는 혁신추구, 인성에서는 자기미래설계 그리고 공간협업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외국어 능력에서는 전세계 영어 공용 시험인 아이엘츠(IELTS)와 말하기평가 시험인 오픽(OPIC) 성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다. 나는 해외대학원 진학을 염두하고 있었기에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평가하는 시험인 아이엘츠 시험을 준비했다. 학기중이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Overall 6.5 그리고 오픽은 IH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환경 변화 적응력과 혁신추구로는 영어공부 이후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후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도전한 것을 말하고 싶다. 중국어는 HSK6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프랑스어는 TCF 듣기와 어휘는 B1, 독해는 B2를 취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어는 저번주인 11월 13일에 DELE B1을 응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자기미래설계로는 이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먼저 나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운영요원(진행요원)으로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미래포럼이라는 한겨레가 주최하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등 유명연사가 참가한 이 행사에서는 해외연사관리를 담당해 통역과 번역을 맡았다. 이후 코엑스 그리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무역상담회를 하면서는 해외바이어와 국내바이어들이 상담을 할 때 통역을 해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거나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세상에 다양한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국어 실력이 아니었다면 감히 이러한 다양한 국제포럼 등에 참가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능력으로는 세계와 대화하는 방법을 체득하였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토박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사고방식도 한국식이고 '우물안 개구리'였다. 하지만 수업에서 숙지한 표현을 써먹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인 외국학생과 언어교환을 하는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교수님의 따뜻함으로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으로 내가 하고싶은 것들에 도전하며 꿈을 이뤄나가는 중이다. 나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영양분이 된 <공직자실무영어>



수업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수업을 이끌어주신 최창현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 장려상 ]

# 반복 없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김운선 / 경영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원영아 교수
교과목	창의적 사고와 표현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유용한 지식전달		
한줄 평	창의적 사고와 표현 수업은 매주 한 편 꾸준함이다.		





## 반복 없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고등학생 때 나에게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지 항상 궁금했다. 글쓰기를 시작해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나는 글쓰기는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수강한 이후로 6주 동안 매주 한 편의 글을, 그 이후엔 3주에 한 편씩 글을 써서 한 학기 동안 총 8편의 글을 썼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주어졌고 안 써지는 글에 괴워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정신없이 보낸 일주일들. 내가 봐도 내 글은 잘 쓴 것 같다며 우쭐해지다가도 다른 학우들이 써온 글을 읽다 보면 놀라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더 나는 더 이상 재능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꾸준히 쓰면서 글쓰기 실력이 나아지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A4용지의 매주 한편의 꾸준함은 글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꿔주었다. 잘 쓰든 못쓰든 반복적인 글쓰기의 소중함. 교수님께서서는 꾸준함이 모든 것을 나아지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를 보면 자신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조사사 '나'도 있고 우리나라 성씨 '나'도 있고 일본어의 '나' 형용사도 있다. 우리는 현재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 제목에 알맞게 교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어 하나를 보여주셨고 그에 따른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써오라고 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단어에 대해 바로 생각해 보면 나오는 흔한 뜻에 대한 글이 아니라, 인터넷에 쳤을 때 사전에서 그 단어의 다른 뜻들을 한 번 더 찾아본 후에 글을 쓰는 것을 강조하셨다. 한 번 더 생각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단어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다. 나, 꿈, 바람, 인, 금, 차 이렇게 6개의 단어를 주마다 내주셨는데 아마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 단어를 보고 생각한 뜻들은 비슷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우 3명씩 팀을 맺어서 릴레이 글쓰기를 했다. 주제와 형식은 자유롭게 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글을 썼다. 총 6주 동안 이루어진 릴레이 글쓰기는 3주씩 총 두 편을 만들어도 됐고 6주 동안 한 편의 글을 써도 됐

다. 나 혼자 생각하고 글을 쓰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학우들과 소통하면서 시작과 결말을 함께 만들어야 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수업이다 보니 매주 한편, 후에는 몇 주마다 한편의 글을 써서 LMS에 올려야 했다. 그 글의 창의성과 표현력 등에 따라 3점 만점의 점수를 차등 분배해 주었고 주마다 발표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발표하지 않는 학우들의 글에 대한 피드백까지도 LMS 과제 댓글에 적어주셨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 글을 써오고 발표를 하면 교수님께서도 매주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발표하는 학우분의 글에 대한 얘기를 다 같이 나눴다. 교수님께서도 글의 형식, 표현력 등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학우들끼리 자유로운 상호작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교수님께서도 학우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표하는 학우분의 글에 대한 좋았던 점, 궁금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참가하고 있었다. 어떠한 의견이든 존중해 주셨던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발표하는 학우뿐만 아니라 그 글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학우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나는 교수님께서 주신 단어에 대해 바로 떠오른 뜻과 다른 뜻들을 메모장에 적어 두었다. 그리고 남들과 겹치지 않는 주제로 쓰려고 고민했으며 글의 종류도 주마다 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어느 날은 에세이, 어느 날은 시, 어느 날은 설명문으로 작성했다. 또한 학우들의 글을 보면서 스스로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점, 형식에 대한 아쉬움 등 다른 학우들의 글은 나에게 좋은 피드백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발표할 때 좋은 점이든 아쉬운 점이든 학우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나 또한 다른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꾸준히 글을 썼고 꾸준히 나아졌다.

나는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수강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먼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차'라는 단어를 봤을 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어학사전에 '차'를 검색해 보면 차레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두 갈래 진 비녀의 하나를 뜻하는 명사, 어떤 수에서 다른 수를 뺀 나머지 등 많은 뜻풀이가 나온다.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많은 뜻이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은 훗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을 토대로 새로운 방법과 관점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이 수업은 나의 창의적 사고 발전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리고 학우들의 글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는 시간은 나의 의사소통 능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첫 주만 해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서툴렀기 때문에 피드백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고 조심스러운 나의 의견을 호응해 주시면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셨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고 나중에는 내가 먼저 손을 들고 학우들의 글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하여 공유하는 의사소통능력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개인 과제로 진행되던 글쓰기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릴레이 글쓰기로 대체되면서 팀플로 진행되었는데 내가 속한 팀은 6주 동안 총 2편의 글을 쓰기로 했다. 팀끼리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는 순서, 형식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팀플을 진행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이 충돌할 경우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절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팀은 서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다른 형식으로 글을 쓰길 원하게 되면 충분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릴레이 글쓰기는 팀원끼리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상호 존중 자세를 통해 나은 방안을 도출하는 대인 감수성, 조정 및 통합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창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에게 글쓰기란 언제나 재능의 영역이라고 여겨져서 글과 관련된 수업이나 공모전은 도전해 볼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만 매주 한편씩의 글은 나의 생각을 통째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한편의 글을 쓰고 발표를 한다는 게 겁이 났고 잘 쓰지 못한 나의 글이 잘 쓰는 사람과 비교될까 봐, 내가 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 됐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창작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나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편을 완성했다. 우리는 서로의 글을 칭찬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꾸준히 글을 썼고 계속 글을 쓰는데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 학기에 총 2편의 글을 써서 교내 공모전에 제출했다. 몇 년 동안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내

가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건 글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침표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다. 일주일에 A4 한 장이 누군가에게 적다고 느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게나마 완성했던 글들은 점점 내게 긴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을 추천함에 있어서 이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 작은 것들에 대한 꾸준한 연습은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진다는 점.

이 수업은 나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은 물론이고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연습과 공감과 협업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망설여했던 것을 마칠 수 있는 끈기를 기를 수 있게 된 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가르침이었다. 모든 것은 반복 없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글을 쓰는 것 그 무엇이라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재능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꾸준함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계속하는 것. 졸업을 앞두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된 수업이었다.

1. <b>월간제1주</b>   월간제1주   월간제1주   1주 2021.09.01 ~ 2021.09.07   2021.09.07 ~ 2021.09.14	월간제1주	월간제1주   월간제1주   월간제1주   1주 2021.09.01 ~ 2021.09.07   2021.09.07 ~ 2021.09.14
2. <b>월간제2주</b>   월간제2주   월간제2주   2주 2021.09.14 ~ 2021.09.21   2021.09.21 ~ 2021.09.28	월간제2주	월간제2주   월간제2주   월간제2주   2주 2021.09.14 ~ 2021.09.21   2021.09.21 ~ 2021.09.28
3. <b>월간제3주</b>   월간제3주   월간제3주   3주 2021.09.28 ~ 2021.10.05   2021.10.05 ~ 2021.10.12	월간제3주	월간제3주   월간제3주   월간제3주   3주 2021.09.28 ~ 2021.10.05   2021.10.05 ~ 2021.10.12
4. <b>월간제4주</b>   월간제4주   월간제4주   4주 2021.10.12 ~ 2021.10.19   2021.10.19 ~ 2021.10.26	월간제4주	월간제4주   월간제4주   월간제4주   4주 2021.10.12 ~ 2021.10.19   2021.10.19 ~ 2021.10.26
5. <b>월간제5주</b>   월간제5주   월간제5주   5주 2021.10.26 ~ 2021.11.02   2021.11.02 ~ 2021.11.09	월간제5주	월간제5주   월간제5주   월간제5주   5주 2021.10.26 ~ 2021.11.02   2021.11.02 ~ 2021.11.09
6. <b>월간제6주</b>   월간제6주   월간제6주   6주 2021.11.09 ~ 2021.11.16   2021.11.16 ~ 2021.11.23	월간제6주	월간제6주   월간제6주   월간제6주   6주 2021.11.09 ~ 2021.11.16   2021.11.16 ~ 2021.11.23
7. <b>월간제7주</b>   월간제7주   월간제7주   7주 2021.11.23 ~ 2021.11.30   2021.11.30 ~ 2021.12.07	월간제7주	월간제7주   월간제7주   월간제7주   7주 2021.11.23 ~ 2021.11.30   2021.11.30 ~ 2021.12.07
8. <b>월간제8주</b>   월간제8주   월간제8주   8주 2021.12.07 ~ 2021.12.14   2021.12.14 ~ 2021.12.21	월간제8주	월간제8주   월간제8주   월간제8주   8주 2021.12.07 ~ 2021.12.14   2021.12.14 ~ 2021.12.21
9. <b>월간제9주</b>   월간제9주   월간제9주   9주 2021.12.21 ~ 2021.12.28   2021.12.28 ~ 2022.01.04	월간제9주	월간제9주   월간제9주   월간제9주   9주 2021.12.21 ~ 2021.12.28   2021.12.28 ~ 2022.01.04
10. <b>월간제10주</b>   월간제10주   월간제10주   10주 2022.01.04 ~ 2022.01.11   2022.01.11 ~ 2022.01.18	월간제10주	월간제10주   월간제10주   월간제10주   10주 2022.01.04 ~ 2022.01.11   2022.01.11 ~ 2022.01.18
11. <b>월간제11주</b>   월간제11주   월간제11주   11주 2022.01.18 ~ 2022.01.25   2022.01.25 ~ 2022.02.01	월간제11주	월간제11주   월간제11주   월간제11주   11주 2022.01.18 ~ 2022.01.25   2022.01.25 ~ 2022.02.01
12. <b>월간제12주</b>   월간제12주   월간제12주   12주 2022.02.01 ~ 2022.02.08   2022.02.08 ~ 2022.02.15	월간제12주	월간제12주   월간제12주   월간제12주   12주 2022.02.01 ~ 2022.02.08   2022.02.08 ~ 2022.02.15

〈각 주차별 주제들과 제1주차에 '나'라는 키워드로 작성했던 글 첨부합니다.〉



## [ 장려상 ]

###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중요성

장한결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포리 교수
교과목	경제영어에세이읽기			
추천 이유	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다양한 교수법			
한줄 평	경제영어에세이읽기 수업은 고진감래 이다.			



#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중요성



## I. 들어가며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이 말은 톨스토이가 남긴 명언 중 일부이다. 2021-2학기 수업 중 경제영어에세이 읽기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이 말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본 수업은 글로벌 지역 통상학(미국) 전공 수업으로 교양수업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영어를 전공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따로 영어를 배워보지 않은 나에게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했던 다양한 활동들과 여러 과제들 그리고 내 노력이 합쳐져서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얻은 것도 많은 수업이다.

## II. 수업내용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보통의 수업과는 다르게 교수님께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수업 시간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읽고, 미리 질문에 답해온 내용들을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수님께서 수업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이에 대한 점수 비중도 높았다. 따라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발표기회를 얻기 위해 항상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수업 분위기도 집중하는 분위기였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쉽게 지루해지지 않았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파악하고, 그리고 계속 글을 읽고 분석하고 따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야 하며, 답이 완료된 이후에는 발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 수업은 다양한 교재를 이용해서 진행되는데 교재별로 느낀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수업의 교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재, 두 번째는 에세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만드신 PPT 자료이다. 첫 번째 교재는 A, B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A파트는 교재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수록된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으로, B파트는 직접 TED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이 질문들에 답하는 활동은 모두 과제로 부여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직접 교재를 읽고, 동영상상을 찾아서 듣고 교재에 수록된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에세이는 교수님께서 직접 선별해서 올려주신다. 이 활동은 보통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된다. 교수님께서 일정 시간을 주시면 학생들은 그 안에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한 뒤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 PPT 자료는 이 수업 중에 유일하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시험문제는 주로 이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내용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암기해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음 특징으로는 많은 과제양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재에 있는 활동들을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수업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과제로는 듀오링고(영어 기초 연습), 단어 암기, 교재 문제 풀기 등이 있다. 전부 수업 시간 전에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본다. 본인 같은 경우에 이 과제들을 마무리하는데 까지는 길게는 5시간까지도 걸렸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수업명이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여서 읽기에 관련된 활동을 주로 수행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수업을 되돌아보면, 여러 에세이도 읽고, 교재에 실린 글도 읽고 테드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분석하고, 교수님이 제작하신 PPT를 통해 배운 글쓰기 방법과 글을 읽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글을 써보기도 했고, 이렇게 쓴 글을 같이 수업을 들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았다. 여러 가지 분야를 전부 사용하는 활동들을 통해 학습목표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모든 분야를 골고루 발전해 갈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인 에세이 작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볼까한다.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활용해 보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에세이의 주제는 무조건 ‘경제’에 관련되어 있어야 했다. 이 과제는 10월 말부터 시작했다. 우선 주제를 정하고, 뉴스 기사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을 사용하여 자료를 모았으며 여기서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법과 찾은 자료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틀을 짜고 각자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수업에서는 비판적 사고,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 되었다. 이 수업들을 통해 내가 찾은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봤다. 또한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에세이 쓰는 법을





통해 차근차근 과제를 마무리 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에는 교수님께 문법적이나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 리뷰를 받았다. 12월초에는 이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 교수님께서서는 각 학생들마다 발표에서 잘했던 점과 주제에 대한 칭찬을 하시며 긴장을 풀어주셨다. 또한 발표가 끝나고 발표 에디트유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셔서 내가 한 발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대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이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쓰기, 말하기, 읽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다 사용해 본 것이다.

### Ⅲ. 수업참여

나는 영어를 전공하지도, 그리고 따로 영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전공인 이 수업은 나에게 버겁게만 느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며, 본인 나름대로는 이 수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예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예습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은 없었으며,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 수업만큼은 예습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교재 속 내용은 과제를 하면서 여러번 반복하게 되므로 교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에세이 수업을 진행 할 때였다.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어민들이 쓴 에세이를 교수님께서 주신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또한 수업시간에 본문을 읽는 것 또한 모르는 단어가 지뢰밭처럼 가득한 상황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전에 미리 그 주에 진행하실 영어 에세이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미리 수업시간에 나갈 에세이를 파악해 갈 수 있었다. 매주 홈페이지를 확인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여러 번 읽고 문장구조를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뜻을 파악해 나갔다. 수업시간에 본문을 보다 수월하게 읽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 여러 번 본문 내용을 읽어 봤다.

두 번째로는 수업시간에 탭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수업 중간에 노트북이나 탭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에세이들을 미리 탭에 다운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나온 모르는 단어들을 수업시간에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 시험을 볼 때도 유용하게 사용했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진행 할 수 있지만 큰 화면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단어 시험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또한 노트북은 글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교수님께서 수업 회 차 중간에 노트북을 사용하여 개인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이때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노트북이며 이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과제에 쓸 자료들을 찾았다. 교수님께 궁금한 점을 쉽게 물어볼 수도 있었다.

세 번째로는 시험 점수를 위한 팁이다. 이 수업은 중간, 기말 고사의 문제가 대부분 교수님이 제작하신 PPT에서 나온다. 교수님께서도 PPT를 잘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업자체가 다른 과제와 교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중간고사 때는 PPT에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간고사에 PPT내용이 대부분이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말 고사에는 PPT를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외우면서 시험 준비를 했다. 역시나 기말고사에도 PPT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그리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 IV. 마무리 하며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레포트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도 해봤지만 그 누구도 레포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발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점들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었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고 그저 곁핍기식으로만 배워왔던 글 쓰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 수업은 과목명과는 달리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네 분야를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수업이었다. 특히 글에 관한 모든 것에 자신이 없던 나에게 앞으로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한 방법까지 제시해준 수업이었다. 교재에 수록된 TED 영상들을 여러 번, 자막 없이, 있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듣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하고,

수업 중에 있던 두 번의 에세이 쓰기를 통해 쓰기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매 수업 때마다 한 발표와 내가 쓴 에세이에 대해 발표하면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여러 에세이와 교재를 공부하면서 읽기 능력 또한 향상 시킬 수 있었다.

글쓰기와 영어, 이 두 가지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얻는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주신 많은 피드백과 3개월 동안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영어의 기본적인 4가지 부분들의 고른 실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필요한 것들이며 올바르게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추천한다.





## [ 장려상 ]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형준 / IT경영학(IT소프트웨어)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라영수 교수
교과목	관리정보체계론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관리정보체계론 수업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강의이다.		



##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갑작스러운 팬데믹과 더욱 갑작스러운 대면 수업으로 모두가 당황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셨고, 나 또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 보람차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만족스러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 중 라영수 교수님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따라서 이 에세이를 통해 교수님의 강의 '관리정보체계론'을 금강대학교 학우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관리정보체계론 강의는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배우는 강의이다. 관리정보체계론 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지만 지식의 원천을 형성하는 자료와 정보를 배우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즉, 경영정보시스템은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 받고, 제공 되어진 정보를 조직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학문이다.

이처럼 관리정보체계론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우들이 듣는 수업이고, IT를 전공하는 나로서는 학점은 고사하고 수업에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부터 드는 강의였다. 학기를 마친 후 저의 그런 고민은 '기우'였고, 이번 학기에서 들은 강의 중 단연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자부할 수 있는 강의이다.

'관리정보체계론' 강의의 특징은 교수님이 딱딱한 수업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것에 있다. 전체적인 수업 방식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이해'라는 교재에 기초했으나 교수님께서서는 교재에서 배운 내용과 더불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가져와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특히,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전공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나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영감, 즉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나는 신문은 고사하고 뉴스조차 보지 않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완전히 무관심한 학생이었다. 그렇게 진행한 첫 토론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

고 매시간 진행되는 토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다. 이후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PPT를 정독하고, 다음 강의에 진행될 토론의 주제와 비슷한 사례 등을 직접 찾아봄으로 토론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시험 기간 정도를 제외하면 수업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았던 나로서는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학기에 두 번 정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나에게서는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비대면 수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며 학교에 다니지만 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주제로 중간고사 이전에는 개인 발표, 기말고사 이전에는 팀 발표를 하는 것이었고 나는 운이 좋게도 두 번 모두 팀 발표를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게으른 편이라서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와 더불어 학습에 동기부여가 된 요인이 더 있는데 자신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었다. 점수를 위해서라면 적당히 쉬운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문제를 만들기 위해 강의자료를 복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문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수님의 의도한 학습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느낀 것은 과하지 않은 양의 질이 좋은 프로젝트는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최고의 장치라는 것이다. 특히 매시간 진행되는 토론 같은 경우 지문 속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빠르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남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강의를 듣기 이전까지 자신의 의견을 남들에게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였다. 주로 내 의견보다는 남들의 의견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진행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나의 의견을 남들에게 공유하고 설득하는 것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상호존중의 자세 또한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고전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영화로도 나온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책을 읽고 느낀 점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저 쉬어가는 주차 정도로만 생각하여 가볍게 준비를 하였으나 생각보다 다들 진지하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분야를 공부해와 나 또한 제대로 준비를 해야 했었다. 크게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 그리고 개츠비의 사랑에 관하여 두 가지 주제



로 팀을 만들었고 심층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팀에 들어가 토론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었다. 토론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공에 따라 생각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행정학, 경영학, 불교학파가 가진 생각은 전부 달랐고 이들이 가진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흥미로웠다. 학문을 통해 배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법과 관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론적인 강의는 자칫하면 수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집중력 또한 저하될 수 있다. 관리정보체계론 수업은 교수님이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빛을 만들어냈고 학생들도 이러한 열정에 응해 의견을 많이 내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업의 방식은 학생들이 꾸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단순 지필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발산시키며 주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왔기 때문이다.

관리정보체계론 강의를 들은 후 단순히 학문적인 배움을 넘어 공부법의 변화, 나아가 금강대학교가 추구하는 LOTUS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나에게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거리가 멀고 접해본 적도 없는 나에게겐 막연히 어렵고 추상적인 학문이다. 하지만 ‘관리정보체계론’ 강의는 나에게 있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던 최초의 강의이며, 대학 생활 강의 중 최고의 강의였다. 이것이 학이시습지 에세이의 주제를 관리정보체계론 강의로 선택한 이유이며 경영학 전공의 수업이지만 전공을 불문하고 금강대학교 학우에게 추천하는 강의이기도 하다.





## [ 장려상 ]

# 나는 이제 읽고 말할 수 있다

하희철 / 공공정책학부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강정애 교수
교과목	독서와 토론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독서와 토론 수업은 읽기와 읽고 말하기 이다.		



## 나는 이제 읽고 말할 수 있다



장담하는데 토론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학생은 드물다. 토론은 경쟁이다. 동네 pc방을 방문해서 학생들 모니터를 한 번 살펴보자. 열에 열은 이름은커녕 얼굴도 모르는 온라인 상대방과 열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정열적인 논쟁 현장이야말로 경쟁의 표본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학교 토론 수업 시간만 되면 교탁을 향해 정수리만 내놓는다. 토론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온라인 상대방 부모님 안부도 잘 아는 학생들이 어째서 토론 준비는 잘 해오지 않는 것일까. 토론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은 말하기 능력이 아닌 읽기 능력이다. 논점이 무엇인지 증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논제에 따른 사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 읽기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워든 유튜브 요약 영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마저도 10분을 넘어가면 보지도 않는다. 심각하다. 21세기는 범람하는 정보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다. 정보를 분석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다. 독서 능력과 토론 능력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불안해 한다. 읽어도 뭐 말인지 모르겠고, 내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금강대학교 강의가 있다. 독서와 토론 강의다.

독서와 토론은 총 2시간이고 첫 한 시간은 독서 다음 한 시간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 시간에는 책을 읽지는 않는다. 지정된 도서를 미리 읽어오고 그 도서에 대한 내용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작가 소개, 집필된 시대적 배경 소개, 줄거리 소개,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철학적 사조와 엮어 설명해준다. 이 도서 설명 시간이 끝나면 토론 시간이다. 토론은 도서 시간에 다루었던 도서와 큰 연관성은 없다. 토론 논제를 학생이 직접 정해 오면 된다. 논제 정하는 데 제약은 별로 없다. 책 한 권을 소개해야 하고 이 책 내용과 관련지어 논제를 설정해야 한다. 책을 정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 소설이든 수필이든 본인이 원하는 도서를 결정하면 된다. 토론 논제, 소개할 도서, 발표 날짜를 LMS 자유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는 ppt로 해도 되고 말로만 해도 된다. 보통 대부분은 ppt를 준비해 온다. 발표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제시된 논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을 한다. 발표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논제의 찬반 중 한 쪽을 정하고 관련 주장과 근거를 펼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청중인 학생들에게 찬반 중 어느 입장인지 손을 들게 한다. 찬반이 갈리고 나면 본격적인 자유 토론이 시작된다. 찬반 중 가장 적은 인원수가 손을 들은 입장 진영의 학생부터 주장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모두가 한 번씩 주장을 하면 이제 질문 시간이다. 이 질문은 반박의 성질을 띤다. 발표자에게 질문해도 되고 청중에게 질문을 해도 된다. 교수님은 사회자 역할을 하시며 학생들의 말을 요약해주시거나 쟁점을 잡아주신다. 토론에는 입안 반박 마무리 세 개의 단계가 필요하고 각 단계별로 참여자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이 수업에서는 이런 역할 관계가 없다. 모두가 입안자고 모두가 반박자다. 보통 서로 자유 토론을 하다가 수업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 주장을 할 여유는 없다.

지정 도서는 LM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까지 다룰 도서를 전부 개설 강좌 정보란과 LMS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으신다. 학생은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LMS에 올라온 자료실 내용만 읽어 가도 괜찮다. 교수님께서 책의 줄거리와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책을 혼자 읽는 것은 어렵다. 책 내용상의 배경이나 집필 당시의 배경 지식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지정 도서에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도 있었다. 이 책을 읽고 필자는 페스트라는 역병을 마주한 여러 인간 군상과 이를 극복하려는 개개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실존주의와 엮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애초에 알베르 카뮈가 실존주의자인 줄도 몰랐다. 교수님께서서는 알베르 카뮈가 실존주의 문학을 쓰는 작가였던 사전 설명을 해주시며 소설 내용을 해부해서 분석해주셨다. 그 분석에 실존주의를 첨가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셨다. 실존주의자들은 전쟁을 겪으며 위기를 느꼈다. 죽음에 맞닿으면 실존을 생각하게 된다. 전쟁을 겪고 본질주의에서 실존주의로 넘어왔다. 지금 살아 있는 개개인,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너, 나, 우리에게 대한 고민.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본연의 나를 드러낸다는 생각이 실존주의의 출발이다. 이러한 실존주의의 가치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그 내면에 있는 심리를 엮어가며 말씀해주신 덕분에 혼자 읽을 땐 느끼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책의 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책의 구절을 ppt에 직접 보여주시며 문장과 대사를 필자에게는 없었던, 예를 들어 카뮈가 삶을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단 인생관을 지녔던 인물이었던 사실,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재해석해주신다. 덕분에 한 번 읽었던 내용도 전혀 다르게 와닿아 독서에 흥미가 생기고 글을 읽어 그 너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이 강의에는 중간 고사도 없고 기말 고사도 없다. 발표와 질문 등 수업 참여도와 마지막 주에 갖는 기말 토론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필기가 없단 뜻이다. 그러면 도서 시간에 배

우는 책의 내용과 그 책과 관련된 주제는 한 번 배우고 끝나야 하면 그것도 아니다. 기말 토론 때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지정해주셨던 책과 관련해서 논제가 결정된다. 논제는 두 개로 결정되고 승패를 확실히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 참여도가 주 평가 항목이다. 참여라고 한다면 토론이다. 발표 학생이 가지고 온 토론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기 꺼끄러운 학생들은 이 수업을 기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된다. 교수님께서 사회자,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서 학생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해 주신다. 필자는 말이 어눌한 편이다. 핵심만을 말하기 버거워 한다. 이런 점을 교수님께서 캐치해주셔서 말의 잔가지 부분을 정리하고 핵심을 콕 집어 대신 말해주신다. 엄벌주의와 온정주의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다. 필자는 엄벌주의 입장이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화를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형량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주장을 했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나 감정이니 법의 본래 목적이니 하면서 부연 설명이 너무 길었고 핵심을 장황하게 늘려서 다른 학생들이 알아듣기 어려웠다. 교수님께서 온정주의가 법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요약 정리해주셨다. 교수님께서 말의 핵심을 파악해주시는 데다가 잘했고 못했고를 신경쓰시지 않으셔서 토론은 원활하게 진행됐고 필자도 자신감을 얻어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토론은 자주 막힌다. 지엽적인 쟁점에 빠져 비생산적인 말하기가 계속되거나 쟁점 자체를 못 찾아 서로 각자 할 말만 하고 말과 말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그럴 걱정이 별로 없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방향을 잃으면 갈 곳을 제시해주시기 때문이다. 안락사 관련 토론 때 일이다. 한 학생이 자살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죽을 권리인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학생들은 자살과 안락사 사이 한동안 빠져 있었다. 이때 교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서 정당화하는 것과 사회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요 쟁점의 내용을 정리해주셨던 덕분에 다음 쟁점을 넘어갈 수 있었다.

이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지닌 학생들이 교수님의 중재 하에 원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해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방 말에 설득당하는 경험을 하며 잦은 이겼든 졌든 넓은 시야를 공유할 수 있다. 실제로 온정주의 엄벌주의 논제 토론에서 온정주의 입장은 발표자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토론 진

행 중 엄벌주의에서 온정주의로 돌아서는 학생이 나왔다. 범죄자도 결국 언젠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단 발표자의 말에 수긍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제에 대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의견이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공유할 수도 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의견을 공유해서 다양성 존중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온정주의 엄벌주의 발표자는 혼자만 온정주의 입장이었는데 덕분에 모든 학생들의 질문에 반박하며 토론 진행을 이끌다시피 했다. 다수를 설득하고 발표자가 되어 진행을 주도하며 리더십을 기를 수도 있다. 상대 말에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알아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활용 능력이 길러진다. 상대 반박의 타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분석력도 기를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 토론 때 한 학생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경력직 선호도가 높아졌단 근거를 제시했는데 필자는 경력직 선호도 증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신입 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블라인드 채용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대가 제시한 근거와 논제와의 인과 관계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었다. 이것도 토론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이다.

이 수업에 임하며 필자가 주도적으로 행한 학습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다. 타이핑이다. 필기는 느리다.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와서 타이핑을 해야 한다. 교수님께서 집어주신 쟁점을 적고 학생들이 말하는 주장을 적어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반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단순히 듣기만 하고 반박하는 것은 어렵다. 모든 학생이 한 번씩 다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던 학생의 반박을 생각하다가 다음 학생 의견을 듣기 어렵고 다음 학생 의견을 듣고 있으면 생각해두었던 반박 내용을 까먹게 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 한 번 타이핑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내 머릿 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다. 들으면서 한 번 타이핑하며 한 번 총 두 번 정리 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타이핑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학생들이라면 타이핑하기를 권장한다.

이 수업 덕분에 필자는 여러 변화를 겪었다. 말하기 능력 향상은 말할 것도 없다. 혼자 말할 땐 모른다. 자신의 말하기가 어떤지. 하지만 같은 논제를 가지고 다른 학생이 말하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싶은 점, 지양하고 싶은 점을 객관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교수님께서 내 말의 핵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악해주는지를 보고 내 말하기의 수준을 상처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내 말하기의 핵심을 대신 짚어주시는 노고를 교수님께서 줄이셨다. 내 말하기가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했던 뜻이다. 수업 전에 지정 도서를 읽고 그 책에 대한 내 해석을 타이핑해 온다. 교수님 해석 설명과 내 해석을 비교하며 내가 찾지 못했던 점을 되짚어볼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읽고 분석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자신의 말하기,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타인과 의견 공유하기를 즐기는 학생에게 이 강의를 추천한다. 21세기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실질적 연결 고리는 과거에 비해 더 떨어졌다. 과거의 개인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해 다른 집단 예를 들어 국가나 기업 타 지역과 대립할 때 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파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집단의 소속성은 떨어졌지만 기업과 국가의 잔혹성은 더욱 영악해졌다. 개인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 이 책임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다. 내게 해를 끼친 상대방을 분석하고 공격해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강정에 교수님의 독서와 토론 수업을 듣고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 참가상 ]

### 심화 경제학으로 가는 보조무기

구동언 / 경영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이승모 교수
교과목	교양 경제학		
추천 이유	학생중심 수업/다양한 교수법/유용한 지식전달/ 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교양 경제학 수업은 심화 경제학의 보조무기 이다.		



## 심화 경제학으로 가는 보조무기



필자에게 경제학은 어려웠다. 구축효과, 출구전략, 조세의 귀착, 탄력성 등 다양하고 알기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경제학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줬다. 어려웠던 이유가 단순히 용어의 탓만이 아니었다. 지난 학기 경제학원론을 배우면서 각 용어의 개념들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배우면 배우수록 놓치는 것이 많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경제학이 어렵다고 겁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학기 금강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인 학습튜터링을 강의를 같이 듣는 동기들과 함께 하면서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에세이를 통해 튜터링에서 얻은 학습 노하우와 교양 경제학 강의를 간략한 요약해 앞으로 교양 경제학을 듣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교양 경제학을 듣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주고자 하는 팁은 수업을 들을 때 예시를 집중적으로 들으라는 것이다. 학점을 잘 받고자 하는 학우나 순수하게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학우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팁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교수님이 수업 중에 설명하신 예시에서 그대로 나왔다. 그렇다고 예시만 달달 외워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질 않기를 바란다. 예시는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이다. 다음 사진은 교수님이 수업 중 설명하신 예시를 요약정리 해둔 것이다.

Ex) 주채는 월로 하나를 가지고 있다.  
 점포: 임대료 월 100만원  
 가열=> 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옷가게 하고 싶어  
 수익 550  
 비용 500  
 이윤 50  
 기회비용: 통상비용 500 + 알뜰직 비용 100 = 600  
 \*  
 회계적 이윤 = 수입 - 비용  
 경제적 이윤 = 수입 - 기회비용

이 요약정리의 내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주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포기한 단일 최대 가치를 말한다. 요약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인 내가 점포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 그 점포의 임대료는 월 100만원이다. 하지만 이미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옷가게를 하고 싶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옷가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550만원이고 비용은 500만원이다. 이윤은 50이다. 하지만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체는 50만원만

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임차인을 그대로 두는 선택을 했으면 100만원을 얻는 것이지만 임차인을 내보냄으로써 50만원의 이윤만 얻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념을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드는 것으로 수업이 반복된다. 하지만 단순히 개념과 예시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으면 이 수업을 추천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양 경제학 수업은 경제학의 배경지식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순수출을 단순히 영어 철자로 표시하면 NX이고 NX의 구성은 X-M으로 되는데 이것들이 왜 X인지 M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시다. X는 수출의 영어 표현인 eXport의 X이고 M은 수입의 영어표현인 iMport의 M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그리고 역사를 결합해 동서양 가치관을 비교하기도 한다. 동양적인 사고에 의하면 경제제민이라 하여 경제는 우두머리가 관리하는 가치관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양국가를 살펴보면 경제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경제를 관리하는 장관을 비난한다. 하지만 서양의 경우 Economy의 어원이 Oikonomos인 점을 들어 설명한다. 뜻은 가계경영을 뜻하며 즉 경제는 민간의 영향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서양 가치관 비교를 통해 경제학을 배울 때 유용한 배경지식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교양 경제학 강의는 경제학에 대한 견문을 높이는데 추천할만한 강의이다.

강의의 이름이 교양 경제학이기 때문에 거시 경제학이나 미시 경제학처럼 심화적인 수식을 이용하는 내용을 배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이 수식을 사용하지는 것을 꺼려하신다. 왜냐하면 사람과 같은 생산변수를 0.7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경제학을 배울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운영 방식은 수업이 끝날 때 질문을 던져주신다. 예를 들어 '선물은 공짜인가 아닌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주어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다음 강의시간에 배울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질문을 즐겨 하신다. 예를 들어 '희소종인 물고기가 공유지인 바다에 살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 주로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에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질문 받는 것이 걱정이면 뒷자리에 앉으면 된다.

나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로 교수님께서 수업 중 설명해주신 예시를 중심으로 학습을 했다. 이외에도 학습 튜터링을 통해 서로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보기도 하고 설명하면서 서로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찾고 기록해두고 심화학습을 했다. 나는 예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 외의 것들 중에 서로에게 설명하는 것이 되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해한 것을 설명할 때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 개념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

### 심화 학습이 필요한 부분 (혹은 학습 후 느낀점)

경제생산 제강이 없지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가 왜 비효율적인지를 설명하고 기업들이 분업화를 피하는 이유를 규모의 경제가 큰 규모의 환경에서 되면 법적인 경제를 실시하면 좋다는 점에서 학습할 수 있어 경제적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됐다.

이다. 실제로 필자는 같이 공부를 하는 학우한테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와 같은 경제개념을 설명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설명하면서 배운 개념이 많았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해두고 다시 설명하면서 확실히 나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 되게 유용했다. 이러한 학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자는 최소한 수업 당일이나 수업이 있는 주의 주말에 복습을 했다. 이러한 복습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본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인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학우들의 노하우나 학습 성과를 살펴보면서 평소에 하고 있던 공부 방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학습노트를 통해 공부를 하고 느낀 점이나 심화학습이 필요한 점을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 다음사진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준 학습노트다.

이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부족했던 점이나 느낀 점을 쓰면서 하루 공부를 요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심화내용을 학습할 때 인터넷 검색을 자주 활용하기도 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나 추가로 학습을 더 원하는 정보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면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분석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출구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나 구축효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수업 중 배운 내용을 통해서 찾은 정보를 분석해 분석적 능력을 키울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학습하고 구축효과와 출구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보면서 구축효과나 출구전략과 같은 경제 개념을 숙달시킬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습 튜터링을 통해 서로에게 설명해주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생각하다보니 공감협업 역량 중 대인감수성,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조정 및 통합의 세부역량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을 경우 좀 더 적절한 표현을 탐구해 상대를 이해시키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중 중간평가 과정 중에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습 노하우를 보

고 우리 팀의 노하우와 비교해보고 우리 팀의 노하우를 개선했던 점에서 문제해결 역량의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승모 교수님의 교양 경제학 수업에 대한 간략한 수업소개부터 수업과 관련한 팁, 수업 스타일, 학습 노하우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성장했던 점까지 서술했다. 필자가 이 에세이의 제목을 심화 경제학으로 가는 보조무기라 지은 까닭은 거시 경제학이나 미시 경제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학기에 교양 경제학, 거시 경제학 그리고 미시 경제학까지 총 3가지 경제학 수업을 들었다. 거시 경제학이나 미시 경제학은 수식이나 학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학을 볼 때 수학적으로만 접근해 그저 문제풀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교양 경제학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다보니 거시 경제학이나 미시 경제학의 이론이나 수식을 말로 풀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단순히 경제학을 수학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풀어 학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면 교양 경제학을 먼저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 [ 참가상 ]

### 번역의 세계로

김지민 /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동미 교수
교과목	영한번역연습		
추천 이유	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유용한 지식전달		
한줄 평	영한번역연습 수업은 신비한 세계 이다.		



## 번역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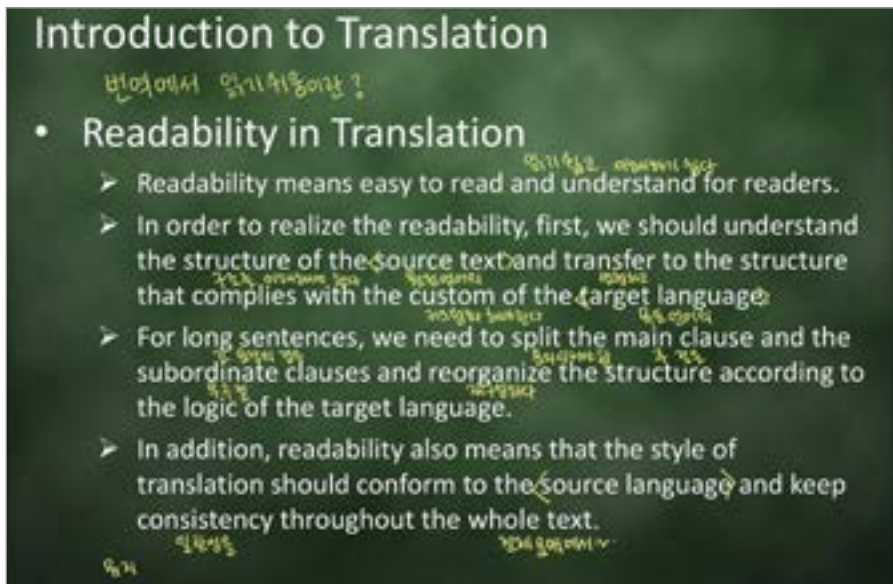


나는 약 1년간의 휴학을 마치고 이번에 마지막 학기를 다니게 되었다. 내가 휴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어서이다. 사실상 비대면 수업으로는 높은 질의 강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대학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데, 줌이나 LMS에 올라오는 강의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없어 굉장히 아쉬웠다. 나는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바로 ‘영한번역연습’이었다.

나의 전공은 어려운 영어 논문을 참고해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항상 번역기의 도움을 받곤 했는데, 완벽하게 그것을 번역해낼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에서 개설되는 강의가 무엇이 있을지 고심하던 찰나에 우리 학과에서 가끔 개설되는 ‘영한번역연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이번 학기에도 개설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다행히도 이번 학기에 개설되었고, 나는 마지막 학기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영한번역연습’은 내가 접하는 모든 영어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효과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 배우는 유익한 강의이다. 김동미 교수님은 본격적인 번역 연습을 하기 전에, 번역의 목적과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번역의 목적은 독자가 번역본을 읽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번역된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번역의 목적만으로도 나는 이제껏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의 원리와 목적을 배우고 나면, 교수님은 다양한 주제로 번역 연습을 시키신다. 가장 좋았던 번역 연습은 영자 신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 15명이 이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첫 번째 번역 연습으로 각각 다른 내용의 15개 신문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번역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원칙은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서였다. 그래서 시간도 꽤 소요하여 번역본을 완성 시켰다. 그리고 각



〈교수님이 제공하신 ‘번역의 원리’ 자료 중〉

자 완성한 번역본을 다른 학우들이 검토하게 하여, 매끄러운 문장이 되도록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다른 학우들이 고쳐준 번역본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최종 번역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첫 번째의 번역 연습을 마친 후에 교수님은 두 번째의 영자 신문을 나눠주셨다. 이번에는 첫 번째 번역 연습과 같이 혼자 번역을 한 다음, 파파고(네이버 번역기)를 사용한 것을 그대로 다른 종이에 작성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여 각자 사람이 번역했을 때와 컴퓨터가 번역했을 때의 장단점을 적도록 하셨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강의를 듣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영어를 번역기를 이용하였을 때, 부자연스러운 단어와 문장 구조의 결과 때문이었다. 교수님은 이후에 3가지의 논문을 공유해주셨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아직 기계번역은 인간의 번역 능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기계번역은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단을 번역해내더라도 완벽함과 자연스러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 내가 이제껏 품고 있던 번역의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번역할 원자 신문〉



〈내가 작성한 번역본 일부〉

또한, 효율적인 교수님의 강의법 덕분에 앞으로 내가 어떤 다짐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예전에 나는 내가 무언가를 완벽히 번역해내는 것은 분명 넘지 못할 한계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수업은 나에게 신비로운 번역의 세계를 알게 해주었으며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도전정신을 길러주었다.

혹여나 이 강의를 들을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난 후회 없이 선택하라 말하고 싶다. 영어가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교수님의 강의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분명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 수업을 듣는 것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영어는 우리가 앞으로 무조건 함께해야 하는 동반자와 마찬가지로. 이 수업을 통해 영어에 더 자신감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나처럼 영어만 읽어도 한국어를 읽어지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해보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 참가상 ]

# 마츠하시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일본 문화 여행

김찬겸 / 공공정책학부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
교과목	일본 사회와 문화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일본 사회와 문화 수업은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문화와 차이를 매듭지어주는 수업 이다.		





## 마츠하시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일본 문화 여행



해당 교과목은 ‘마츠하시 사치요’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강의이다.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쓰인 교재로 강의 진행에 기본 틀을 정하시고 그 틀을 토대로 교수님이 준비하신 갖가지 자료들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본인이 추천하는 이유는 주변 이웃 국민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실제 일본 분이신 마츠하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와 지식을 습득 가능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츠하시 교수님께서서는 본인의 실제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을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히 녹여내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해 내신다. 실제 국민으로서 겪었던 경험담들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접근했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괴리감을 없애주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함을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관심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유학, 여행 등에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목 수강을 추천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국이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마 절대다수가 알 것이다. 자국에 국민으로서 행정구역을 아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타문화를 수용하고 관용할 줄 아는 태도를 지향하라고 한다.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우리이다. 그러나 주변국인 일본의 행정구역까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불특정 다수에게 “일본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는가?”에 대해 물어본다면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질문에 쉽사리 답할 수 있는 이는 분명히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통찰이라도 한 듯 마츠하시 교수님의 수업은 일본의 지도와 한국의 지도를 그리며 수업의 첫발을 내딛는다.

수업을 통해 실제 일본 지도와 우리나라를 지도를 그려 보았을 때 정답에 그나마 가까운 사람은 있어도 정답과 매우 흡사한 이는 없었다. 우리는 어쩌면 목적 없는 단순 이해와 포용을 다문화 교육을 통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는 수업. 그 수업이 이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순간이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해당 수업을 일본에 관심이 있

거나 혹은 본인이 유학, 여행 등에 생각이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고 하였는데, 추천의 이유가 해당 수업의 주차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 도쿄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묻는다 가정해보자. 돌아오는 대부분의 형태는 이렇다. 나는 도쿄에 가고 싶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도쿄가 어디 있는 줄 아는가? 추측건대 대다수가 본인이 여행을 가는 곳의 지역 명칭만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도쿄가 어디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마츠하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다면 일본에 대한 이해, 그 첫 시작을 지도 그리기와 일본의 행정구역인 '도도부현'에 대한 수업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가는 나라를 통계를 낼 때 반드시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가 어디일까? 그것은 일본이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국가가 일본이다. 정작 해당 지역의 명칭만 알 뿐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들이 여행자인건 하지만 이는 목적 없는 단순한 유량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관심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유학, 여행 등에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이라는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하여 일본의 지역별 문화, 일본과 관련된 신화, 음식, 예절과 같이 다양한 실생활 문화까지 한 학기의 강의가 이어져 가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일본의 문화를 좋아한다면 해당 문화만 알고 가면 되는 것일까? 예컨대 본인이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본으로 여행을 가 현지식당에 들어가 본인의 마음대로 식사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연 그들의 식문화를 본인이 존중한 것일까? 이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타 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그렇다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진정으로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라면 배려와 존중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당신이 관심 갖고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그 나라 일본.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와 차이에 관한 이해를 당신과 매듭지어 주는 강의가 이 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에 대한 설렘을 갖고 있는 당신에게, 설렘이라는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강의로 이 강의가 어떨지 넌지시 추천해 본다.

시험에 관해 팁을 주자면 교수님께서 매주 차 구글퀴즈를 통해 문제를 내신다. 해당 문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예상 문제이므로 해당 주차를 열심히 풀기를 바란다. 본인 역시 해당 퀴즈를 통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였다. 본인의 경우 퀴즈를 틀린 것은 틀린 부분은 다회독을 통해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였고, 서술형의 경우 퀴즈에서 나온만한 부분을 발췌하여 키워드를 정리해 암기하여 시험을 준비하였다. 또한 장문형으로 서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해당 문제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활용했던 자료가 참고 되어있다. 이 같은 경우

에는 시험 범위로 공고하시기 때문에 해당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본인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문외한인 나는 한 학기 동안 마츠하시 교수님 수업을 통해 많은 모른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된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수업을 듣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곤 수업에 임하였다. 첫 수업을 통해 일본에 관한 행정구역부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텐진 마쓰리, 요사쿠이 소란 마쓰리, 아와오도리 등 일본의 지역별 축제, 오세치 요리와 같은 음식 문화, 결혼식, 장례식 문화와 같은 예식 문화에 이르러 전반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든 생각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끝내 해당 수업을 통해 지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두렵고, 막막하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뚫고 실행에 옮겨 성취하는 것. 그 태도가 내 삶을 진취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도 체감한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며 무언가를 도전할 일이 정말 많다. 그때 마다 지금의 기억이 나에게 원동력을 불어줄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한 학기 동안 고생하신 마츠하시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는 새 학기, 어렵게만 생각한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배움을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다.



〈참고자료 : 수업자료(교재) 및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발표 과제물〉





## [ 참가상 ]

### 금강대에서 떠나는 중국 여행

육동인 /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유아려 교수
교과목	중국인과 중국문화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개방적인 수업/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 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중국인과 중국문화'수업은 간접적으로 중국 여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각을 넓힐 수 있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		



## 금강대에서 떠나는 중국 여행



‘중국인과 중국문화’ 수업은 원래 졸업인증으로 인해 수강하게 된 전공과목이었다. 본래 중국어를 졸업인증언어로 공부하기는 했지만 중국에 대해, 자세히는 중국문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 수업은 내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 나아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 나라 국민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큰 궁금증이 생겨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 수업은 중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도 중국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흥미만 있으면 유익한 수업이다. 하지만 언론매체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15주 수업으로 요약하고 소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문화에 관심 있는 학우에게 중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알려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우에게 적극적으로 이 수업을 추천한다. 또한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학우에게도 추천한다. 이 수업은 중국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을 학습하고 지리, 술, 차 문화, 드라마와 음식, 여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이며 나아가 중국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사, 정치 및 사회문제 그리고 중국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와 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강의하시는 유아려 교수님께서서는 중국인이시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중국문화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시며, 학생들의 눈높이 맞추어 강의해주신다. 그리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끔 도와주시고 수업 중간중간 다양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능동적인 수업을 진행하신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의 폭이 넓어졌다. 중국에 국한된 것을 넘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건과 마주쳤을 때 현상과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사건 안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추론하는 '분석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나아가 중국 영화를 보고 난 후 스스로 '분석적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문제해결) 다른 방안도 생각해 내는(창의적 사고) 부분도 향상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문화, 가치관에서 나오는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 [ 참가상 ]

### 너는 경제를 알고 있니?

이주훈 / 공공정책학부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이승모 교수
교과목	교양 경제학		
추천 이유	다양한 수업자료/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교양경제학 수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의 인지 이다.		



## 너는 경제를 알고 있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안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보통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사는 가격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할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지만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른다면 정당한 가격으로 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을 할 수 없으면서 그저 물건만 구매한다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의 흐름과 판단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바로 교양경제학이라고 생각한다.

교양경제학 강의를 보통 이론수업이 대부분이다. 이승모 교수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경제학 입문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에 2교시의 시간으로 진행이 된다. 처음 수업에는 경제라는 과목이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수강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 경제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부담감과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또한 경제라는 단어에 지레 겁을 먹고 한 학기 동안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먼저 들었는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수강을 시작했다. 첫 수업을 시작하자 새로운 개념의 회소성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우리가 생각하던 회소함이라는 차이가 있는 단어이기에 많은 혼란함을 느꼈다. 그렇기에 역시 경제 과목이라 어렵겠다, 한학기 동안 어떻게 배우지 라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나는 회소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점점 쉽게 느껴졌다. 새로운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들을 예로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며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암기가 아닌 이해의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암기하면 어렵지만 이해하면 쉽다 라는 말을 들어 봤지만 실제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같은 경우 보통 공부를 할 때 암기보다 흐름의 이해를 중시하는 데 강의를 수강했을 뿐인데 이해가 되기에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첫 강의 옅기에 걱정이 모두 걷어지지는 않았다. 첫 강의까지도 경제라는 영역의 어려운 소문과 내용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도 우리 수업은 수학적 계산을 거의 배제하여 수학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최소한의 영역의 수학만이

가미되어 있기에 이해를 한다면 한학기 동안 수월하게 들을수 있을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걱정을 조금 덜어내었다. 첫수업만 쉬운게 아니었을까 이제 어려운 내용만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는 못한 상태로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과 편익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지난시간의 희소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욕구와 자원유한성에 따라 욕구 충돌로 인한 희소성의 증가라는 부분과 이어지는 편익과 그로인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조금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개념이 모호한 느낌도 들고 이해되는 듯 아닌 듯 하는 느낌이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와중 교수님의 설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교수님께서 선 어려운 예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접하기 쉬운 물건들을 예시로 든다. 기회비용을 설명할때는 밀가루를 예시로 들었는데 밀가루로 국수와 빵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둘 중 가치가 더 높은 것을 만들 것이다. 만약 빵의 가치가 더 높다면 빵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국수를 만들 기회를 잃게 된다. 이로인해 국수를 만들 기회비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의 이해가 한번에 되었다. 가치가 더 큰 물건을 생산함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수를 먹을 기회라는 것이 희생이 되었으며 이렇게 희생된 기회가 기회비용이다 라는 설명에 따라 암기할 필요없이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 배운 개념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해와 암기를 해버렸다. 처음 배운 개념을 응용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 였는데 배운 개념에 대해 모든곳에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쉽게 느껴졌다.

이처럼 초반 수업에 대해 의구심과 안도심을 가지고 다음수강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물건을 한번이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때 이처럼 유익한 내용이 있을까 생각되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대와 특징 그리고 부를 쌓을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과 효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과 돌아가는 흐름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 이를 모른다면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없고 그저 경제에 관해 수동적인 태도 밖에 보일수 없게 된다. 그저 경제에 관한 간략한 지식이라도 자본주의에 관해 알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 알지못한다면 어긋난 방향의 지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사유재산이 인정됨에 따라 배제와 양도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고 상품생산이 지배적이게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분업과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배경까지 배웠음에도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 없이 모든 개념이 나의 것이 되었다.

수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부분이 진행이 되었다.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수 있는 부분이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들에 의해 변하는 가격과 요인들 등등 배울 부분이 너무 많았기에 기대되는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다. 이는 오롯이 시험이라는 평가로 들어갈것이기 때문에 긴장하는 한편 경제라는 과목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는 파트이기에 설레기도 했다.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 그리고 가격의 결정 등등 배우는 동안 나는 오히려 의아하기도 했다. 왜이렇게 간단해 보이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배우고 있는게 경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해가 되었다. 수학적 개념이 가미되었지만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며 그이상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던 경제와 다른 과목이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수학적 요소가 거의 배제된 수업이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며 드디어 경제에 관해 두려움을 떨쳐낼수 있었다.

다음 내용에선 조금 어렵게 느껴진 내용이었다.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독립변수의 변화율과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었기에 떨쳐냈던 두려움이 슬그머니 치켜세우는 느낌이었다. 가격 소득 타재화의 가격 그리고 이들의 탄력성과 반응정도라는 그냥 읽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었기에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교수님이 이걸 아셨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다. 가격에 민감한 쪽이 탄력성이 높다 라는 가벼운 내용을 말씀하시듯 던져주시는 말과 그에 따른 예시를 듣자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이 어느새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변하게 되었다. 농부의 재배물을 예시로 들었는데 쌀은 하루 3끼 먹는 것이기에 비탄력적이다 쌀값이 오른다고 하루1끼 먹게 되는 것이 아니며 쌀값이 내린다고 4끼5끼를 먹지 않는다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된다 라는 교수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주변에 존재하며 쉽게 이해할수 있는 물건을 예시로 들어주시며 학생들에게 설명해주실 때 직관적으로 해주신다.

이로써 수업의 반이 진행이 되었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격규제라는 개념이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이곳에 포함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정부가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되어 가격이 최고 상한가와 최저 하한가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인데 소비자의 보호목적과 공급자의 보호목적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내용을 들어가며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셨다. 최저시급제 같은 경우 노동의 질에 따라 낮을수도 높아질수도 있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이 정해져 버려 실업자가 늘고 있다.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며 경비원들의 시위를 예시로 들며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예시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임대료라는 규제를 예시로 들어주셨다. 우리는 언젠가 독립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내게 될 것이

다. 이에따라 임대료를 제한함에 무조건적으로 세입자에게 이득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시고 장단점을 설명해주시며 정부의 규제에 관한 참여할과 잘못된 점을 이해시켜주셨다.

이와 연관된 내용으로 노동조합 흔히 노조라고 불리는 조합을 설명해주셨는데 노동조합의 발 발의의는 매우 참되었지만 이가 변질되어 지금은 처음의 참여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비판으로 시작하셨다. 이러한 모습은 처음 뵈었기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임금소득의 증가, 작업조건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에서 언제부터인가 무조건적인 임금의 증가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량은 자연스레 줄게 되고 그로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며 노조가 없는 상태의 경제를 예시로 한국과 미국을 서로 비교해주시며 이해를 도와주셨다. 평생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은 있는 미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평생직장이 대다수이기에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노조가 목소리를 높일수 있게 되며 악영향을 끼칠수 있게 된것이라며 텃새와 배척과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그로인한 임금과 고용량의 상관관계에 이르는 심화내용까지 하나 잊어버릴수 없는 수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에따른 정책에 관해 배울수 있었다. 실업에도 종류를 나눌수 있으며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그 내용이다.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뉘는 요소는 자신의 의지 유무인데 일할 능력 의사가 있으나 임금수준에 따라 일자리의 유무에 따라 나뉘는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현상이며 이를 예측할수 있는지에 관한 유무에 따라 대처가 달라지고 원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정책인데 중앙시장의 통화량 조절정책같이 우리가 볼수는 없지만 경제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다.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을 조절하게 되고 그에따라 투자와 저축이 줄거나 늘게 되어 채권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결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그에 따르지 않는 상황같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개념들을 설명해주셨다.

이처럼 나는 반학기 동안 교양경제학 수업을 들었다. 성적을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수업을 들음으로서 나에게 성장과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할수 있다. 경제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던 그저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할 수밖에 없던 사람으로 시작하여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식을 교양이라는 과목으로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함양하게 됨으로 지나가다 물건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뉴스에 나오는 경제에 관한 내용도 짧은 지식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



게 되었다.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11과목을 수강하면서 이처럼 재밌고 도움이 된 과목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학우들이 이 수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면 무조건적으로 듣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경제를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적용이 되는 내용들도 많았기에 학교를 재학하면서 한번쯤 들어보고 경제를 알게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 [ 참가상 ]

### 꿈을 위해 한발짝

이채은 / 경영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조현욱 교수
교과목	공기업 특강		
추천 이유	유용한 지식전달		
한줄 평	공기업특강 수업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 이다.		



## 꿈을 위해 한발짝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먼저 이 강의를 듣게 된 계기부터 설명하겠다. 수능을 본 학생들이라면 모두 탐구영역을 선택했을 것이고, 문과 학생이라면 탐구영역 중 ‘법과정치’라는 과목이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고등학생의 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법이라는 과목을 매우 좋아했고 학교에서 정해진 선택과목 개설반 중 법과정치를 선택했고, 인기가 없는 과목인 만큼 학생 수가 적어 40명 남짓되는 학생들로 구성된 반이 한 개가 나오게 되었다. 14개 반 중 1개의 반만 법과정치였으니 내신 점수 경쟁률도 매우 높았고 당연히 1등급급 한명이라는 압박감에서도 나는 법과정치를 하겠다고 굳세게 밀어붙여 결국 법과정치를 배우게 되었다. 더불어 고등학교 동아리도 경찰동아리를 하며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경찰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후 정작 아무 상관도 없는 대학교에 오고, 관련없는 전공을 들으며 경찰이라는 꿈을 버렸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3학년이 되었다. 이것저것 해볼까? 하며 발만 들였다가 학점은 낮게 나오기 일수였고, 학점이 낮게 나오니 당연히 흥미도 떨어져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전공 과목에 재미를 붙이지 못해 다양한 분야라도 해보자! 하며 행정학을 융합전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행정학과 수업을 들으며 그래도 공무원 준비라도 해볼까 하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법원행정공무원’을 알게 되었다. 우연인지 시기가 딱 맞게 법원행정 공무원을 알게 된 후 3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새로 개설된 ‘공기업 특강’이라는 과목이 형법총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나와있었다. 법원공무원은 옛날에 꿈꿨던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몸을 쓰는 부분만 빠져있었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직업이었다. 법원행정 공무원의 시험범위에는 형법이 있었기에 공기업 특강을 보자마자 내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고민하지도 않고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일단, ‘공기업 특강’이라는 과목은 사실 과목 명만 봐서는 형법총론을 왜 배우지? 하는 의문이 먼저 들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다른 수업인 ‘공기업론’과 몇 주 동안 헛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내의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보통의 행정법이나, 헌법 또는 기본행정학 등과 경영학과에서 배운 기업법, 회계 등과는 엄연히 다른 분야의 수업이기 때문에 나같이 갈팡질팡하는 학생에

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조금 더 심화된 분야를 배움으로써 많은 선택의 폭을 만들어주고, 넓혀주었다고 생각한다. 형법총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도 형법총론 자체가 엄청 지루한 과목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지루할 수도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법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들어 후회하지 않을 과목인 것도 맞다. 사실 나처럼 다른 분야나 전공에서 좀 더 심화된 분야에 흥미가 있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과목을 개설해주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혼자하는 것보단, 교수님께 배우면서 정말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기업특강’을 수업해주신 교수님은 조현욱 교수님이다. 이 수업은 매주 교수님께서 형법총칙의 내용과 의의, 그와 관련된 판례들과 예시들이 정리된 pdf 파일을 올려주시고 그것을 다운받아 수업하였다. 수업을 듣지 않는 남들이 봐도 많은 양의 pdf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사실상 형법의 각 조항에 따라 그에 맞는 판례와 예시들이 정리되어있는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수업이었다. 물론 모든 법에 대한 수업이 판례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형법이라는 분야는 조각사유 등 형벌이 감면되거나 보류되는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헛갈리는 분야이다. 이렇게 형벌을 배우다가 보면 경우마다 다른 판결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내 지식의 범위와 포용력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보통 형법 조항을 먼저 중심으로 삼고 그 조항에서 좀 더 퍼져나가면서 설명하시는 방식이다. 마인드맵과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잉방위’에 대한 수업이라면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에서 파생된 개념들과 그 개념들을 더욱 알기 쉽게 실제 범죄내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주신다. 과잉방위한 무엇이며 예를들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죽인 것은 과잉방위, 만일 침입이 아닌데 침입으로 생각하고 죽인 것은 ‘오상과잉방위’라는 등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다른 개념을 설명해주신다. 이러한 마인드맵과 같은 설명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다. 수업자료가 항상 많다고 느껴질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개념의 꼬리와 꼬리를 물어 파생된 설명을 통해 하나를 알게되면 그것과 관련된 것이 모두 연상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셨다.

이 수업을 따로 공부하면서 나는 개념보다는 판례를 읽으며 개념을 알아가는 식의 학습을 하

였다. 교수님의 파생개념식의 수업을 바탕으로 이 관례에서 조금 더 오바되면 어떠한 개념이 될지 생각하며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개념만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서 나의 생각의 범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실제 사회문제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나는 좀 더 발전되고 논리적으로 뉴스나 기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 sns에서 보는 썸네일이나 기사제목만으로 왜 저런 판결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적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 나의 의구심이나 불만을 표현할 때에 다른사람과의 충돌이 잦았고, 그때마다 항상 혼자 답답해하며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형법총론을 배운 이후로 많은 관례들을 보고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어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 법적 쟁점을 찾는 방법도 깨닫게되었고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수업이었다.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와 어떤 일에 대해 중심논점을 찾을 수 있는 나로 발전한 것이 이 수업의 방식과,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수업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생소한 과목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수업이 개설된다면 평소에 시사나 사회문제, 범죄 등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흥미가 있다면 수업을 들어보고 혼자 사고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본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







## [ 참가상 ]

### 예산, 정부의 살림살이

임진아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구민 교수
교과목	재무관리와 예산론		
추천 이유	학생중심 수업/다양한 수업자료/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재무관리와 예산론 수업은 행정학과 필수 수업 이다.		



## 예산, 정부의 살림살이



돈이 우리 생활에 중요하듯 정부의 일에도 예산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이 용돈과 월급날에 맞춰 경제활동이 돌아가듯, 정부 또한 매년 집행되는 예산에 맞춰 국가의 정책 및 방향이 진행된다. 2022년 정부의 집행예산이 607조원으로 정해졌다. 2021년 예산(558조)과 비교해봤을 때 8.9%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 많은 액수의 예산이 어떤 절차에 의해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되며 행정부에서 집행되어 우리의 일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재무관리와 예산론을 신청했다.

또한 수험적으로 행정학 공부를 했었을 때 재무, 예산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복학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며 한 학기에 걸쳐 용어부터 자세히 배워보고자 이 과목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정부의 예산 과정과 방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산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올해 정책 방향이 어떠한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등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사이트(openfiscaldata.go.kr)를 보면 2022년 확정예산이 공지되어있다. 확정 예산 중 12대 중점 프로젝트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가 있다. 이것이 필자와 수업을 들었던 학우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다.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이에 포함된다. 수업을 듣고 국가예산에 관심을 갖고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학우들이 행정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정복하고 수험생활을 시작한다면 수월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해당 시험에서 행정학이 필수이다. 그 중 재무와 예산 부분은 필자 외에도 행정학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수

협생들과 강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행정학 중 재무와 예산 파트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학 다니면서 한학기 동안 잘 배워놓는다면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의 수험기간이 짧아지고 덜 힘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 번째, 이 수업 과제인 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소 관심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 ‘재무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례분석 보고서’가 그 리포트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관심있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두 곳씩 선정해 성인지 예산안을 분석하고 참여예산제도 사업진행현황과 세출예산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자료가 있는 사이트와 어떻게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지 구성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소 관심있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 참여예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더 구체적인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학습 내용이 더 오래 남는 효과가 있다.

수업 내용은 피피티 자료를 통해 진행되므로 따로 전공 서적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방식은 교수님의 강의 위주이며 과제로 리포트 작성이 하나 있다. 시험 방식은 서술형, 객관식, ox형, 단답형으로 나온다. 작년 시험문제를 학생들 사이에서 족보라고 부르는데 교수님께서 이를 LMS에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업듣기를 걱정하는 학우들은 그러지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분석한 재무와 예산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생소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이었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전 미리 생소한 용어들을 정리해 암기하고 수업에 임했다. 예를 들어 X-비효율성, 와그너의 법칙 등 단어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단어들 위주로 정리했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중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업에 임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특히 강조하신 부분과 수업 후 풀어주시는 각종 시험들의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포인트를 파악해가며 넓은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공부했다.

과제인 ‘재무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례분석 보고서’ 작성 후 교수님께 두 번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내가 배운 점은 단순 정보보다 그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나의 생각과 문제의 개선

사항에 대해 교수님께서 특히 가장 중점을 두고 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을 듣고자하는 학우분들은 리포트 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업을 들은 후 두 가지 역량이 강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정보 활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이 그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사이트, 국가종합 전자조달의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나라장터'사이트 등을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배움으로써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예산개혁을 통해 투명성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정보 공개를 위해 앞의 두 사이트가 제작되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주소와 정보가 어디 위치하는지 수업시간에 소개받음으로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보고서 과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해당 제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직접 찾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봄으로써 분석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예를들어 성인지 예산을 배운 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중구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보고 왜 이 사업이 필요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지출 예산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분석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잘 알게 되었고 예산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기존 예산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도입된 예산개혁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점 또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예산개혁을 통해 납세자 소송과 참여예산 제도가 생겼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도입했지만 중앙정부는 도입하지 않는 등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부터 시작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재무관리와 예산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도 결국 정부의 살림살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 [ 참가상 ]

### 세상의 해상도

정선우 / 국제통상통역학과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정문기 교수
교과목	국제물류론		
추천 이유	개방적인 수업/유용한 지식전달/깨달음을 주는 수업/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국제물류론 수업은 유용한 수업 이다.		





## 세상의 해상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 말은 올해 가을에 항간에서 떠돌았던 말이다.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작스럽게 크리스마스라니, 다소 생뚱맞은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적잖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는 짜증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한숨을 내뿜었다. 나는 무엇을 우려하던 것이었을까?

미리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인즉슨 지금부터 선물을 주문해야 크리스마스 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선물을 준다면 그 감동은 당일 선물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니 전국의 수많은 산타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아마존(Amazon.com)을 뒤적거렸을 게 뻔하다. 환상 속의 산타는 재빠른 루돌프를 타고 굴뚝을 넘나들며 하룻밤 만에 전 세계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지만 현실의 산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루돌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리도 주인을 애태우게 하는가.

그 답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산타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물류대란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타는 좁게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부모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본다면 상점, 기관, 기업, 국가까지 아우른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세상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내가 한숨을 쉰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비록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도 분명히 올 테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적어도 나와 같이 국제물류론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들의 생각과도 일치할 것이다. 물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지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신 덕분이라.

그렇다면 물류란 무엇인가?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아무 물건이나 집은 다음, 그 물건에 Made in Korea라고 적힌 물건이 몇이나 되는지 세어보자. 조심스럽게 들어서 라벨을 확인해 본다면 집은 물건의 대부분은 중국산이거나 동남아 혹은 기타 국가에서 생산된, 즉 물 건너온 물건일

확률이 매우 높다. 자신이 매우 애국심이 투철한 자라서 주위에 국산 물품만 있다고 자신해도 소용없다. 그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 때 반드시 외국의 원자재나, 기계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물건이 물 건너온다는 개념은 곧 물류를 뜻한다.

물류의 정확한 정의를 좀 더 알아보자. 국제물류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류란 국내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이며, 구체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유통, 가공 등) 정보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상의 의미는 다소 딱딱하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물류의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재화(물/物)와 서비스(용역)의 효과적 흐름(류/流) = 물건의 흐름”

그렇다. 물류는 한마디로 물건의 흐름이다. 무역과 매우 밀접한 개념이며 현대인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활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단순히 쿠광이나 우체국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류의 일부일 뿐이고, 물건이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물류라고 부르니 물류란 보통의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물류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 수업에서도 기업중심 관점에서 물류를 설명한다.) 간단한 가정을 통해 기업물류의 과정을 알아보자.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자. 물건을 떼다 팔든, 만들어서 팔든 간에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국내나 해외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만든다고 치고 해외 무역상과 협상을 하여 원자재 수입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자. 일단 당신은 이 원자재를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해 우리나라로 들여올 건지 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옵션으로 비행기, 배, 기차가 있다. 비행기는 빠르지만 비싸다.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기에는 물건 싣는 비행기 공간도 부족할 거 같다. 그렇다면 기차는 어떤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벽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철도운송을 할 수 없다. 무난한 해답은 배로 운송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배는 저렴하지만 느리다. 거기다 대양을 건너오는지라 항해 중 거친 파도도 많이 치고 출렁거리어서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뿐인가? 태풍이나, 안개, 심지어 해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무자비한 공간이 바다다. 재수 없으면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훼손되거나 심하면 멸실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당신의 경우 배가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열에 물건이 상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무래도 보험을 들어 위험을 최소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어찌저찌 무사히 물건을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왔다. 당신은 물건을 수령 한 다음 하자를 검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물론 관세도 내고 통관처리도 했다. 그리고 트럭기사를 고용해 물건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당신의 공장으로 가져왔다. 복잡한 과정이 끝나 속이 후련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겨우 재료 하나 외국에서 들여온 과정을 마쳤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당신은 원자재를 창고에다가 보관하기로 했다.

얼마 후, 당신은 창고에 있는 원자재를 꺼내서 드디어 상품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공장으로 원자재를 옮기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다 만들어진 물건을 포장하고, 포장된 물건을 다시 골판지상자로 겹포장을 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도매상들에게 물건을 보내고, 소매상을 거쳐 마트 진열대를 지나 마침내 어느 한 아파트의 가정집으로 물건이 도착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비록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기업이 행하는 물류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과정도 더 복잡하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길래 내가 그리도 한숨을 쉬었던 말인가? 앞서 살펴본 물류의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비되며, 궁극적으로 과정 하나하나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배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 바다가 무서워 보험을 든다면 보험금도 납부해야 한다. 배에 물건을 싣고자 한다면 적부비용이 든다. 마찬가지로 하역을 할 때도 비용이 든다. 물건을 싣는 컨테이너도 빌리려면 비용이 든다. 통관 할 때도 비용이 든다. 물건을 검사할 때도 비용이 든다. 관세도 납부해야 한다. 항구 설비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항구에서 창

---

고로 물건 옮기는데도 비용이 든다. 창고에 물건을 보관할 때도 비용이 든다. 창고에서 공장으  
로 물건 옮기는데도 비용이 든다. 계약한 대리점이나 도매상에게 물건 보낼 때도 비용이 든다.  
심지어 원자재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  
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물류비용이 기업의 지출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기업의 특성상, 이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한마  
디로, 물류비가 오르는 것은 물가상승을 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물류비용을 줄일 경우 가격을 낮출 수 있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  
서 살아남기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바로 이 부분이 국제물류론 수업에서 목표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본 수업에서는 물류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고, 기업과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물류 관련  
이슈를 다루어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어떻게 넓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다. 현재 수업에서 가장 화두  
가 되는 주제는 당연하게도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이다. 교수님은 미국을 중심으로 물류대란의  
원인을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와 경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어 항구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물품을 운송하  
는 트럭커(Trucker;트럭운송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었다.

둘째, 미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를 우려한 지원금 정책을 펼쳤으며, 지원금은 노동자  
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나, 그들은 넉넉한 지원금을 받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거나 일을 쉬었다.

셋째, 백신이 개발되고 수입이 다시 늘었으나 떠나간 노동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항구  
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대량의 수입 물량을 받아들여 하역작업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넷째, 하역작업이 느려서 컨테이너를 싣고 온 선박의 대기열이 길게 늘어섰으며, 하역을 마친  
물건도 트럭에 실어줄 인력조차 부족해 항구에서 오랫동안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다섯째, 항구에서 물건이 제때 빠져나가지 않아 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체화료(컨테이너가 오랫동안 항구에 있을 시 부과되는 요금)를 지불하고 있으며,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컨테이너가 수요에 비해 모자르게 되었다. 심지어 물건을 싣고 갔던 배마저 돌아오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운임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섯째, 기업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고 비용이 올라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양적완화의 시너지까지 더해 물가상승률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학습하면 근시안적으로 목격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나의 경우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의 추가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고, 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미국의 재고떨이 이벤트)의 가격 할인율이 유독 낮았는지, 왜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이 부족했는지 등의 스쳐 지나갔던 이슈들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 국제물류론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기업의 물류활동은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롭듯이, 물류가 정체되면 경제가 위태롭게 된다.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긴 셈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공부란 지식을 머리에 쑤서 넣는 것이 아닌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공부는 단순한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나는 이미 이 수업을 통해 해상도를 높여봤으니, 다른 후배들도 이 수업을 통해 다채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강의를 추천한다.

덧붙여, 이 수업을 가르치시는 정문기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문기 교수님은 ‘한국미래물류연구소’의 전문연구위원 이시며 대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에 부합하는 강의를 진행하신다. 물류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생각하는 후배님들은 기회가 된다면 정 교수님과 면담해 보는 것을 권한다.





## [ 참가상 ]

그럼에도 나는, 사회복지를.

최주영 / 행정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김태량 교수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학생중심 수업/깨달음을 주는 수업		
한줄 평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은 사회복지에 대한 나의 확신이다.		





## 그럼에도 나는,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수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거친 뒤에야 들을 수 있는 (수업과 병행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바쁜 학기 중을 대비하여 방학 중에 미리 실습을 진행한 후에 수업을 듣는 것이 다수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사회복지전공의 필수과목이다. 올해 여름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나는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이 수업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연계되어 배우는 3시간 15주차, 총 45시간의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다. 세미나는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연구하는 방식이기에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반 정도는 사회복지사로 나갈 준비 단계에서의 여러 지식과 방법에 대해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고, 반 정도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따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없었지만 이를 대체하여 학생 개개인당 두 번씩의 발표를 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성찰일지 발표이다. 각자가 실습기관에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했던 점,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등 자가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이었다. 성찰일지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습했던 3주간의 시간들을 되



돌아보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지’ 인만큼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었다. 그 중 나는 실습기간동안 내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했던 만큼 아동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대다수였는데 아동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여러 갈등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다. 아동들이 잘 놀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겨 서로 싸우고 울기도 할 때 순간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배웠던 지식들을 내가 직접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였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에게 아직 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책상에서만 끝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각자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고된 실습을 마치고 온 전우 같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기관에서의 실습은 어떻게 달랐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궁금증이 생기는 만큼 서로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기관들에서의 실습은 확실히 힘들어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워 보였다. 발표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로 질문도 했다. 교수님도 학생 개개인의 발표마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의 피드백을 해주셨다. 나에게도 사회복지실습으로 아동센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아동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셨다. 사회복지의 분야도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아동 등 다양하지만 평소 아동들을 좋아해서 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으며, 아이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이름과 특징을 익히고 아동들이 올 때마다 먼저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더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내 대답에 아주 좋은 자세였다며 칭찬해주셨다. 교수님의 피드백은 지난 실습기간 학생들의 노고를 알아채 주셨으며,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리한 점을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발표는 기관발표였다. 첫 번째 발표가 지난 실습동안 내가 잘했던 것,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발표는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한 기관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기관발표에서는 사실 내가 발표할 분량이 많이 없었다. 나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해보게 된다면 알겠지만 아동센터에서의 실습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술을 배우기에는 부족함이 조금 있었다.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래서인지 교수님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실습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셨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봐도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온 친구들이 실습기간동안 배운 내용이 많아보였다. 또 실습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세부적인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았다. 체계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배우면서 복지관이 운영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친구들이 많은 듯 했다. 제대로 배우는 만큼 실습기간동안 과제의 분량도 많았고 힘들어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실습을 나가야 할 학우들이 있다면,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저 시간 보내기에 불과한 기관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나는 많은 것을 전달해주지는 못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친구들을 위해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최대한 전달해주기 위해 열심히 발표를 준비했다. 내가 했던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이다. 기관 발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관에서 일어난 배움과 과제들에 대한 발표였기 때문에 학우들끼리도 서로의 발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다. 나 역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실습기관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구나 싶어서 흥미로웠고 부럽기도 했다.

시험 전주에는 이미 사회복지분야에서 취업한 학생이 와서 자신의 기관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다. 아무래도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장과 가까운 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든든했다.

대부분의 수업이 발표로 이루어지고, 보통의 수업에서는 많으면 한번 정도였던 발표가 이 수업에서는 두 번이나 이루어졌었다. 코로나 시기 전에는 수업을 들으며 발표하는 과제가 많았는데 비대면 기간 동안 발표는 해본 적이 없다보니 대면 수업 후 처음 하는 발표에 많이 긴장이 되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첫 번째 발표는 최대한 나의 경험을 솔직하고 진

실되게 전하려 고민했다. 발표 준비는 해도 해도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떨리는 것 같다. 하지만 발표도 처음이 제일 떨리지 말을 하다보면 그 떨림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았다. 떨림이 조금씩 무뎌질 때쯤이면 내 발표를 들어주는 친구들과 교수님의 눈을 맞추며 최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려 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 때는 첫 발표보다는 조금 능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을 앞에서 표현할 일이 많을 텐데 그에 대한 예행연습이 되었던 것 같다.

사회복지학도로서 듣는 마지막 수업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나는 앞으로 걸어갈 나의 길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실습을 통해 보람만 얻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순간순간 난관에 마주할 때마다 사회복지라는 나와의 먼 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잘하고 있고,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을 하고 나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한 점,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무엇을 보완해야할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하고 온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얻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가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실습하는 기간 동안 힘들고 지치는 일들도 많았지만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운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일이 내 직업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동분야에 국한되는 생각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자체에 큰 매력을 느꼈다. 사람으로 힘들고 지치면서도, 또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성찰일지 발표를 통해 나의 부족했던 점을 많이 마주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완해야함도 사실이다. 그래서 수업 후의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내 능력을 계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또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대비하려는 노력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은 그동안 배웠던 사회복지의 학문들을 종합하는 수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수업을 듣게 될 학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수업에서 최대한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실습기간동안 내가 경험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몸으로 직접 다 부딪히고 오라는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이 있어야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할 소재들이 많아진다. 시키는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다면 수업을 따라

감에 있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나만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발표도 주의 깊게 들어야한다. 사회복지 기관은 많은데 내가 실습한 곳은 한 곳뿐이기에 어떤 기관들이 나에게 맞을지 알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자격증의 발급기준이 2020년 개정되어 현재 사회복지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세미나 과목을 포함하여 17개 과목의 수강과 160시간의 실습시간이 필요하다. 실습 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받아야 자격증을 신청할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당신,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신, 잊지 말고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 [ 참가상 ]

**경제학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하아람 / 사회복지학전공

구 분	전공 □    교양 ■	교수명	이승모 교수
교과목	교양 경제학		
추천 이유	원활한 상호작용/유용한 지식전달/이해하기 쉬운 설명		
한줄 평	교양 경제학 수업은 앞으로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한 밑거름 이다.		





## 경제학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20학번은 교양 필수과목 중 ‘경제학입문’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했다. 작년에 수강 신청을 했으나 오티 주에 교수님이 교재 소개와 강의 방식을 설명하셨을 때 ‘이 강의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수강취소 기간에 바로 취소를 했다. 교재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다. 교재는 원서로 된 교재로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강의 또한 경제학 용어를 원어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고 취소를 했다. 당시 수강했던 다른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다. 학생들은 공부한만큼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교양 경제학’ 수업으로 재수강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 이번 학기에는 과목명도 바뀌고 교수님도 다른 분으로 배정되었다.

교양 경제학 수업을 듣기 전 작년의 두려움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중간만이라도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다. 1학년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작년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했었으나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교양 경제학을 재수강하는 것이었다. 서로 이번 학기에는 교양 경제학 수업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좋은 성적을 받자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학교에서 튜터링 프로그램도 참가하면서 수업했던 날 오후 또는 그 주 주말을 이용해서 튜터링을 했다. 주로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과 필기했던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놓친 부분을 채우는 형식으로 공부했다. 또한 둘 중 한 명이 수업 중 놓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면서 수업 시간 내용을 떠올리고 상기시켜 복습 효과를 가졌다. 튜터링을 하려면 튜터링 담당해주시는 교수님을 섭외해야 했다. 교양 경제학 교수님께서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튜터링 중 둘 다 헛갈리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여쭙볼 수 있어서 더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튜터링을 할 때 학습 노트만 작성할 뿐 아니라 그날 배웠던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례가 기억나면 대입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습 노트를 작성할 때 마지막에 심화 학습이 필요한 부분 또는 느낀 점을 쓰는 공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더 깊게 궁금한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기사를 찾아보는 효과를 만들었다.



있다면 후회를 했을 것이다. 교수님은 2시간 수업으로는 교재 한 권 전체를 수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다가 수업에 재미가 붙으니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종강이 다가올 무렵 아쉬움이 많아졌다.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부분은 교재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앞으로 기업과 정부, 시장의 흐름 등을 파악하게 한 다음 자본주의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키우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을 수업하려고 애쓰셨다. 그러다 보니 내용은 많고 시간은 짧아 교재 전체를 배우지는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정부간섭으로 가격규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 노동조합의 문제점 등을 배웠기에 앞으로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졸업을 위해 들어야 하는 단순한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적 사고를 키우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에 더욱이 다른 학생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이다.

2021학년도 2학기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

편 집 로터스칼리지 교수학습지원센터

발 행 금강대학교

발 행 일 2022년 1월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http://www.ggu.ac.kr>